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3월 3일 일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31호

5대륙에서 진행된 2.16경축행사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을 맞으며 세계 5대륙에서 2.16경축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지난해 2월 16일 꼴롬비아의 메델린에서 진행된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위원회 특별회의에서는 2002년 2월에 조선의 백두산밀영지구에서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을 진행할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올해 2월 16일을 세계적판도에서 성대히 경축하기 위한 지역 및 나라별 준비위원회를 내오며 다양한 행사들을 조직할데 대하여 세계진보적인민들과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에 호소하는 공식문건과 행동강령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로씨야, 몽골, 꼬스따리까, 에꽈도르, 영국, 짐바브웨를 비롯한 60여개 나라에서 2.16경축 및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을 위한 특별준비위원회, 전국준비위원회, 민족준비위원회들을 결성하였다.

수십개 나라와 지역, 국제기구들에서 온 수많은 외국의 벗들이 참가한 가운데 조선에서는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이 국제적인 대정치문화축전으로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세계 진보적 인류는 2.16에 즈음하여 **김정일**령도자께 수많은 축전과 꽃바구니, 선물, 명예칭호를 드리였다.

세계 100여개 나라에서 정부, 정당, 단체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경축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인도네시아대통령,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로씨야정부 부수상 등 국가 및 정부지도자들과 고위인사들 그리고 세계 80여개 나라의 140여개 정당지도자들이 참가하였다.

이딸리아, 브라질, 메히꼬 등 40여개 나라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들인 ≪주체사상에 대하여≫와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 로선≫ 등 22종을 28개 어문으로 출판하였다.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주체성, 민족성에 관한 인디아주체사상전국토론회와 유럽지역의 25개 나라와 40여개 정당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투쟁과 조선의 사회주의위업에 관한 유럽지역정당들의 토론회가 진행되였다.

60여개 나라에서 360여회에 걸쳐 경축집회와 모임이, 50여개 나라에서 500여회의 영화감상회, 사진 및 우표전시회가 진행되였다. 또한 60여개 나라의 250여종의 출판보도물이 370여회에 걸쳐 특집하였으며 여러 나라들에서 2.16기념도서들을 출판하였다.

통일연대, 방북불허 규탄및 6.15실현 결의대회

2일 오후 2시 50분,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가 주최한 ≪민간통일운동 선별 탄압 규탄 및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가 소속단체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묘에서 열렸다.

강형구 통일연대 조직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종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과연 6.15 공동선언을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실현할 것인지 김대중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뗀 뒤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자면 통일부, 국정원, 검찰, 국방부가 6.15 정신에 맞춰야 하는데, 국방부는 이북을 주적으로 삼고 통일부는 선별 잣대로 민간교류 행사를 가로막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상렬 상임대표는 ≪6.15를 살리는데 목숨을 걸어야≫ 한다며 ≪6.15를 살림이 애국이고 6.15를 죽임이 매국이다≫고 규정하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단결로써 엄혹한 역사를 뚫고 전진하자≫고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정부의 대규모 방북불허 조치를 규탄하고 부시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비판했으며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는데 민간통일운동이 앞장서 나가자고 결의했다.

경축행사

1 5대륙에서 진행된 2.16경축행사
1 단신 – 방북불허 규탄및 6.15실현 결의대회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노작

2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 (1)

세기와 더불어

4 3장 8절 차광수가 찾은 길 (1)

칭송

6 민족의 우수성을 빛내이시며
6 탁월한 사상이론가

8

한국민족민주전선

7 3.1운동정신 이어받아 반부시투쟁에 총분기하자
7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3월 1일
8 한총련합법화를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이자
9 노동자의 요구는 관철돼야한다
9 조국통일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다

조선중앙통신

10 주체91, 3월 1일 보도
11 반외세,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아가자 – 노동신문사설 3월 1일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12 어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기 위한 사업을 추진 – 2월 28일
13 어버이 수령님의 유훈관철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영도 – 3월 1일

아리랑뉴스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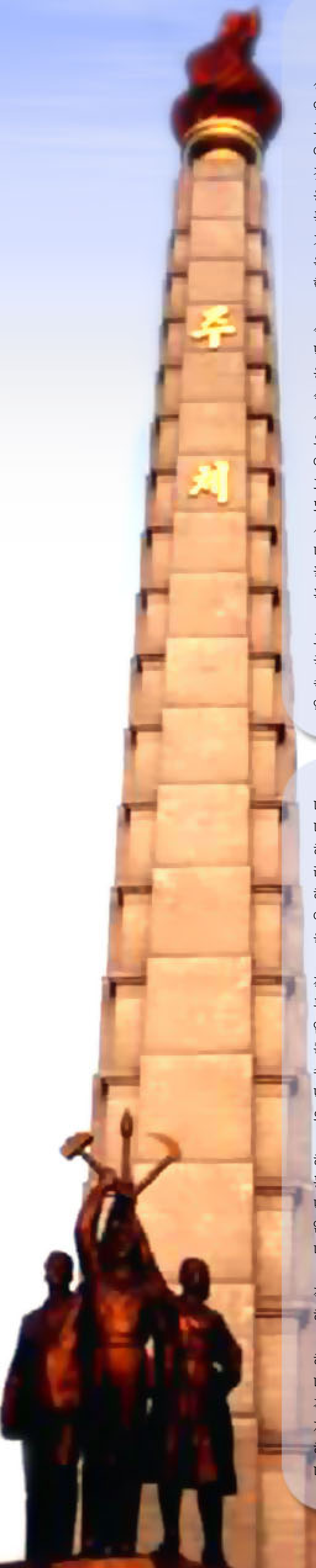
14 통일연대, 방북불허 규탄및 6.15실현 결의대회
14 일제침략 피해자의 강제동원 특별법 촉구대회
14 한미, 내달 대규모 연합훈련
15 네티즌들, ≪미국반대로 제2의 독립군 되겠다≫
15 MBC 김동성파문 ≪왜곡보도≫ 정면비판
15 전국규모 선거보도 감시연대 발족

운동강좌

16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 (6)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 (1)

북과 남 사이의 고위급 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조선 측 대표들과 한 담화 / 1972년 5월 3일, 11월 3일



1. 조국통일의 3대 원칙에 대하여

나는 오늘 당신을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족의 분열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같은 동포끼리 이처럼 만나고 보니 매우 반갑고 감개무량합니다. 당신이 민족의 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무릅쓰고 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용감하고 대담한 행동입니다. 남조선당국이 북과 남 사이의 정치회담에 참가할 결심을 가지고 당신을 대표로 파견한 것은 아주 좋은 일이며 우리는 이에 대하여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지난해 8월 6일에 한 연설에서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 아무 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내가 연설한 다음 며칠 지나서 남조선 측이 남북적십자단체들 사이에 회담을 하자고 응해 나섬으로써 남북적십자단체들 사이의 예비회담이 시작되었으며 그것을 실 머리로 하여 북과 남 사이에 고위급정치회담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격폐되어 있던 북과 남 사이에 접촉과 대화의 문이 열리고 고위급대표들이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으로 됩니다.

지금 온 민족은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조국을 통일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문제는 없습니다.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지 못하고 분열을 지속시킨다면 우리 민족은 열강들의 농락물로 될 수 있으며 두 개의 민족으로 영원히 갈라질 수 있습니다.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표징은 언어와 문화생활의 공통성입니다. 한 핏줄을 이어 받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말과 글이 다르고 문화와 풍습이 다르면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가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다보니 벌써 북과 남 사이에 말도 달라져 가고 문화와 생활양식도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민족의 분열이 오래 가면 갈수록 언어와 생활양식에서의 차이는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해방 후 북반부에서 일부 사람들이 글자개혁을 하자고 주장한 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조국이 통일되지 못한 조건에서 글자개혁을 한다면 조선민족이 두 개의 민족으로 영원히 갈라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언어학자들에게 글자개혁을 하려면 조국이 통일된 다음에 하여야지 그전에 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조국이 분열된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 글자개혁을 하면 북과 남이 서로 다른 글자를 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민족은 두 개의 민족으로 완전히 갈라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민족이 두 개의 민족으로 영원히 갈라지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며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면 우리 나라는 5천만의 인구와 찬란한 민족문화와 위력한 민족경제를 가진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강대국으로 될 수 있습니다.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통일문제해결의 기초로 될 수 있는 근본원칙을 옳게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쌍방이 합의하여 세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북과 남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으며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 대 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첫째로, 조국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외부세력에 의존하여 가지고서는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나라의 내정문제입니다. 민족의 내부문제를 자체로 해결하지 않고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수치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외부열강들의 그 무슨 보장을 받아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제국주의 열강들은 우리 나라가 통일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원래 제국주의 열강들은 나라와 민족이 하나로 단결되면 통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분열되는 것을 좋아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을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조국통일문제를 열강들에 의존하여 풀려고 하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 민족끼리 접촉하여 대화를 하면 능히 오해와 불신임을 없애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열강들의 힘을 빌겠습니까.

우리는 조선의 내정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외부세력도 조선의 내부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외세의 간섭 밑에서는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염원과 이익에 맞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오직 조선민족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당신이 남조선당국도 외세의 간섭을 반대하며 미국과 일본을 끌어들이지 않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하면서 절대로 미국이나 일본의 앞잡이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는데 그것이 진실이라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려면 사대주의를 철저히 반대하여야 합니다.

나는 우리 일꾼들에게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 먹는다고 늘 말합니다. 사람이 자주적인 존재로 되려면 남을 덮어놓고 숭배하는 사대주의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나라가 지리적으로 큰 나라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우리 사람들 속에 역사적으로 사대주의가 많았습니다. 사대주의는 해방 후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기간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꾸준히 벌여 왔습니다.

해방 후에 있은 사실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해방직후에 공산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사대주의에 물 젖은 자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때 서울에서 박헌영이라는 자는 우리 나라를 다른 나라의 가맹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얼빠진 소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에게 매우 나쁜 영향을 주었으며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습니다. 박헌영의 말을 듣고 일부 사람들은 우리 나라가 다시 다른 나라에 예속되지나 않겠는가 하고 우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민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우리는 소련식도 아니고 미국식도 아닌 조선민족의 이익에 맞는 조선식의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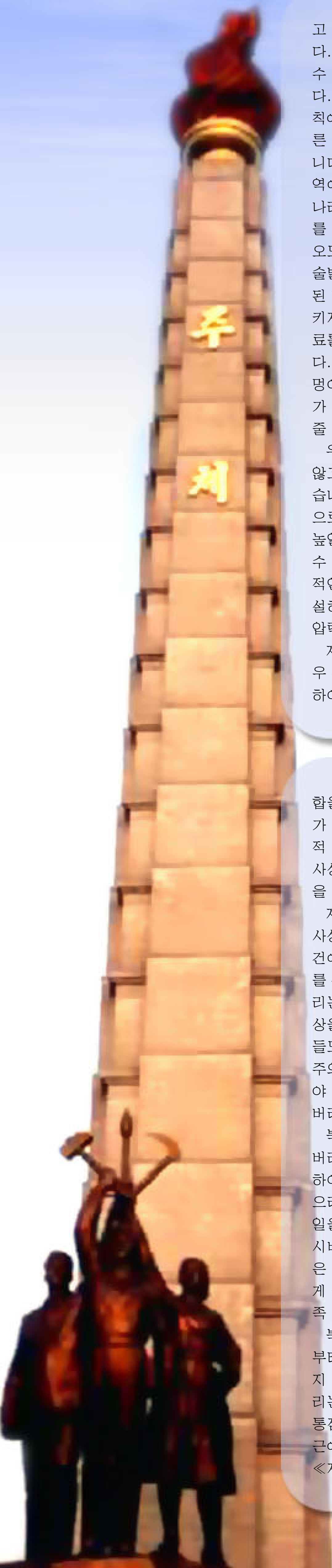
전후에 우리가 농업협동화방침을 내놓았을 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업이 발전된 유럽나라들에서도 아직 농업협동화를 전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공업이 다 파괴된 조선에서 어떻게 농촌경리를 협동화하겠는가고 하였습니다. 사대주의자들은 큰 나라 사람들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나는 레닌이 한 말을 가지고 그들을 논박하였습니다. 레닌은 농민들의 토지와 농기구를 단순히 통합한 공동경리도 개인농경리에 비하여 훨씬 우월하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당의 농업협동화방침은 레닌주의에 맞는 것이며 우리 나라의 현실적 요구로부터 제기된 것이다, 어떻게 공업화를 한 다음에 농업협동화를 하는 것만이 협동화의 옳은 길로 될 수 있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그들도 우리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농민들은 협동화를 하여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살아 나갈 수 없는 형편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농촌경리가 혹심하게 파괴되었으며 농민들에게는 부림 소도 농기구도 얼마 없었습니다. 부농들의 처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는 농민들이 자원성의 원칙에서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힘을 합쳐 공동으로 경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조선사람들은 원래 힘을 합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인민들은 옛날부터 동네에서 누가 잔치를 하면 모두 부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며 그 집에 찾아가서 축하하여 주고 같이 즐기는 좋은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후 우리 나라에 비록 현대적 농기계는 얼마 없었지만 생활 자체가 농업협동화를 절박하게 요구하고 농민들이 협동화방침을 적극 지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농촌경리의 협동화를 짧은 기간에 비교적 순조롭게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 관계를 가지는 데서도 사대주의적 경향을 철저히 배격하

첫째로, 조국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고 자주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얽매일 수 있는 그 어떤 관계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민족경제를 보호하는 원칙에서,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 경제관계를 맺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원료를 주어야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원료를 주고 우리의 기계를 사가는 조건에서만 그 나라의 기계를 사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아직 기술발전수준이 그리 높지 못한 조건에서 발전된 나라들과의 경제관계에서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나라들에 계속 원료를 대주고 가공품을 사오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구멍이 숭숭한 빈 산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구멍이 숭숭한 빈 산을 넘겨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예속되지 않고 자립하기 위하여 참으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으면 나라의 대외적 권위를 높일 수 없으며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건설분야에서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사대주의는 문학예술분야에서 매우 혹심하게 나타났으며 우리는 그것을 반대하여 강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작가, 예술인들 가운데서 일부 사람들은 유럽의 문학과 예술을 숭배하면서 조선사람의 비위에 맞지도 않고 조선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는 작품을 창작하였습니다. 한때 시인들은 뿌슈낀을 숭배하였고 음악가들은 챠이꼽스끼를 숭배하였으며 가극을 하나 만들어도 이탈리아의 ≪오페라≫를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사대주의가 얼마나 심하였던지 일부 미술가들은 풍경화를 그려도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강산을 그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산천을 그렸습니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내가 어느 한 병원에 가보니 그 병원의 벽에는 큰 나무 밑에 흰눈이 깔려있고 그 위로 곰이 기어다니는 것을 그린 씨비리의 풍경화가 붙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군들에게 우리 나라에는 금강산, 묘향산을 비롯하여 이름난 산들이 많은데 왜 조선의 아름다운 산천을 그려 붙이지 않고 저런 그림을 붙였는가, 저런 그림을 그려 붙여서 인민들을 교양 하는데 무슨 의의가 있는 가고 되게 비판하였습니다. 조선민족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삼천리금수강산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조선민족은 앞으로도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강산에서 살아야지 씨비리나 유럽에 가서 살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학예술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들을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국제주의라는 것도 애국주의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국제주의에 충실할 수 없습니다. 조선사람은 유럽식 예술작품을 좋아하지 않으며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 예술작품은 감상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조선사람이 좋아하지 않으며 조선사람의 민족적 정서에 맞지 않는 예술작품은 우리에게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예술이란 민족적인 형식에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사람들의 머리 속에 남아있는 사대주의 사상을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 이론투쟁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오랜 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대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자기 민족의 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려는 사대주의적 경향을 철저히 반대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누가 누구에게 이기는가 지는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세에 의하여 갈라진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면 북과 남 사이의 단합을 이룩하고 민족의 대 단결을 도모하겠는가 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려면 북과 남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야 하며 서로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북과 남이 서로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 강요하려 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남조선에 사회주의 제도와 공산주의 사상을 강요하려 하지 않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도 ≪승공통일≫을 하겠다고 하거나 공산주의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 ≪반공≫의 구호를 버려야 합니다.

북과 남은 단결을 방해하는 적대시정책을 버리고 공통점을 찾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만일 북과 남이 공통점을 찾으려 하지 않고 서로 적대시하면서 지난날의 일을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고 시비를 가르려 한다면 북과 남 사이의 간격은 점점 커질 것이며 조국통일은 더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조국과 민족 앞에 엄중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북과 남이 진심으로 단결하려는 염원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그러한 공통점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최근에 남조선당국자들이 ≪자조≫, ≪자립≫, ≪자위≫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일정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말하는 ≪자조≫, ≪자립≫, ≪자위≫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인 정책과 공통되는 점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북과 남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을 하나하나 찾고 그에 기초하여 단결을 이룩한다면 조국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 사이에 오해와 불신임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과 남 사이에는 차이나는 것도 많고 서로 오해하고 불신임하는 점도 많습니다. 서로 오해하고 불신임하는 조건에서는 민족의 진정한 단합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한가정도 부부 사이의 두터운 신임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서로 신임하지 않으면 같이 살지 못하며 결국에는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북과 남은 서로의 오해와 불신임을 없애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 사이의 오해와 불신임을 없애려면 북과 남의 당국자들과 여러 인사들이 자주 접촉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하여야 합니다. 서로 만나서 무슨 문제든지 다 내놓고 진지하게 의논한다면 오해를 풀 수 있으며 신임을 두터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의 이번 대화를 통해서도 벌써 북과 남 사이에 적지 않은 오해가 풀렸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대화를 할 바에는 좀 일찍이 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조선당국자들이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의 앞잡이가 되어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은 남조선당국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 다시 끌어들이는 일도 없을 것이고 미국이나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나라를 팔아먹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꼭 믿어달라고 재삼 부탁하였습니다. 그런 것만큼 우리는 당신의 말을 믿고 지난 시기에 가지고 있던 불신임을 없앨 수 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가 ≪남침≫하려 하며 남조선을 ≪적화≫하려 한다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남침≫할 의사가 없으며 남조선을 ≪적화≫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에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여러 번 천명하였지만 오늘 이에 대하여 당신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말합니다. ≪적화≫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남조선을 ≪적화≫하려 하지도 않거니와 우리가 ≪적화≫하려 하다고 하여 남조선이 ≪적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지난 시기에 당신들이 ≪남침≫이요, ≪적화≫요 하면서 품고 있던 오해를 이제는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접촉과 대화를 통하여 오해를 풀고 신임을 두터이 해나가면 비록 사상과 이념이 다르고 제도와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초월하여 민족의 대 단결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내일 계속)

1권 제3장

길림시절

1. 선진사상의 탐구
2. 상월선생
3.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4.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5. 단결의 시위
6. 안창호의 시국대강연
7. 3부통합
8. 차광수가 찾은 길
9. 왕청문의 교훈
10. 철창속에서

8. 차광수가 찾은 길 (1)

길림시절을 회상할 때면 잊을 수 없는 얼굴들이 수없이 떠오르군한다. 그 얼굴들의 전렬에는 항상 차광수가 서 있다.

내가 그를 처음으로 만난것은 1927년 봄이었다.

나에게 차광수를 처음으로 소개해준 사람은 최창걸이다. 최창걸은 화성의숙이 페교된 다음 정의부본거지의 하나였던 류하현의 삼원포에서 독립군생활을 하였다.

하루는 그의 련락원이 쪽지를 가지고 갑자기 나를 찾아왔다. 그 쪽지에는 이제 차광수란 사람이 길림에 가니 만나보라는 것과 자기도 인차 길림에 한번 오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며칠후 내가 기독교청년회관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올 때였다. 목이 한쪽으로 약간 기울사한 안경쟁이청년이 불쑥 내앞에 나타나 밑도 끝도 없이 최창걸이란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다. 내가 안다고 대답하자 그는 무작정 손부터 내밀었다. 그가 바로 차광수였다.

그날 차광수는 될수록 자기는 말을 적게 하면서 나한테 말을 많이 시켰다. 그러다보니 그는 묻고 나는 대답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그는 몹시 무뚝뚝하고 범접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훌쩍 사라졌다.

얼마후 최창걸이 약속대로 길림에 왔다. 길림에는 정의부의 지도부가 있었고 그들을 호위하는 중앙호위대가 신개문밖에 막사를 정하고 있었다. 최창걸은 자기네 중대에서 중앙호위대에 련락할 일이 생기자 그것을 핑계로 길림에 찾아온 것이다.

나는 최창걸에게 차광수와의 담화내용도 이야기해주고 그에게서 받은 첫인상도 실토하면서 그가 아직 속을 주는 것 같지 않더라는 말도 하였다.

최창걸은 자기가 처음 그를 만날 때에도 역시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지내놓고 보면 사람은 진국이라고 하였다.

청년공산주의자 차광수

하루는 최창걸이 속해있는 독립군중대장한테 류수하자학교에 공산주의선전을 하는 교원이 있다는 사실이 통보되었다.

중대장은 그를 당장 체포해오라고 하였다.

최창걸은 공산주의라면 덮어놓고 이단시하는 독립군한테 차광수가 혹시 행패라도 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자기의 영향하에 있는 대원들에게 단단히 과업을 주어 보냈다.

최창걸의 과업을 받은 독립군대원들은 차광수가 하숙하고 있는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그들이 받은 저녁상이 몹시 초라했던 모양이다. 강조밥 한숟가락을 물에 마니 죽은 좀벌레와 쌀겁데기가 둥둥 떠올랐다고 한다.

돌아다니면서 대접을 받는데 습관된 독립군대원들은 이것도 밥인가, 독립군을 대하는 본때가 덜돼먹었다고 을렀다댔다.

그때 차광수가 집주인을 두둔해나섰다.

≪이 집 주인들은 며칠째 낟알구경도 못하고 푸성귀로 끼니를 에우고 있소. 독립군어른들이 왔다고 그래도 성의를 다하느라 지주집에 가서 쌀을 꾸어다 밥을 지었단 말이요. 잘못을 따지면 나쁜 쌀을 준 지주한테 있지 정성껏 밥을 지어 대접한 주인한테야 무슨 죄가 있겠소.≫

얼굴을 붉히며 호통을 치던 독립군대원들도 차광수의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다. 리치에 맞는 말이어서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독립군도 몰라본다고 우둘렁거리던 그들이 나중에는 차광수의 인품에 끌리며 체포는커녕 빈손으로 돌아가서 중대장에게 차광수란 사람은 공산당은 아니고 대단한 애국자라고 보고하였다.

최창걸자신도 차광수를 만나보았는데 과연 사귈만하더라는 것이었다. 원래 최창걸은 자기가 일단 좋다고 본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지하고 지극하였다.

나는 최창걸의 눈에 좋게 보였으면 차광수가 좋은 사람일것이라고 믿었다.

최창걸이 돌아간 다음 한주일쯤 있다가 불쑥 차광수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한동안 길림바람을 좀 쐬였노라고 하면서 아닌밤중에 홍두깨라는 식으로 나에게 민족주의자들과의 동맹문제를 어떻게 하겠는가고 물었다.

장개석이 중국공산당을 배신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공산주의운동내부에서는 민족주의자들과의 동맹문제가 격렬하게 론의되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한 견해가 진정한 공산주의자와 기회주의자를 가르는 하나의 시금석처럼 되어있었다. 그래서 차광수도 만나자 바람으로 민족주의자들과의 동맹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를 물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장개석의 변절로 중국혁명에서는 복잡한 사태가 조성되었다.

장개석이 배신행위를 하기전까지는 중국혁명이 눈부신 앙양기에 있었다.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의 합작은 혁명을 추동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되었다.

1920년대 후반기부터 중국혁명은 혁명전쟁의 방법으로 전국의 반동통치를 전복하는데로 나아갔다. 제국주의타도, 군벌타도, 봉건세력숙청이라는 구호밑에 1926년 여름부터 북벌을 개시한 국민혁명군은 호남, 호북, 강서, 복건 등 여러 성들을 장악하고 양자강류역의 주요도시들을 련이어 점령하면서 일제의 조종밑에 화북지방까지 차지하고 있던 장작림반동군벌들에게 드센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상해의 로동계급은 세차례에 걸치는 영웅적 봉기로 도시를 장악하였으며 무한과 구강의 인민들은 북벌혁명의 승리에 고무되어 영제국주의자들로부터 조계지를 탈환하였다. 로동자들은 총파업으로 북벌군의 진공에 호응하였고 농민들은 로동자들과 함께 죽음을 무릅쓰고 대중적으로 북벌전쟁에 참전하였다.

이런 때에 장개석은 국공합작을 파괴하고 혁명을 배신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는 혁명의 지도권을 독점하기 위하여 음모적인 방법으로 국민당지도부와 정부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였으며 제국주의렬강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막후교섭을 맹렬하게 벌이었다.

장개석이 이런 배신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중국혁명이 보다 멀리 앞으로 전진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민족주의자들과의 동맹문제도 지금처럼 날카롭게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차광수는 몹시 분해하였다.

광동혁명근거지가 공고화되고 북벌혁명이 일정에 오르자 장개석은 곧 군사독재를 수립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파시스트적인 테로전에로 이행하였다. 그는 1926년 3월에 중산함사건을 조작한 후 그것을 계기로 황포군관학교와 국민혁명군 1군에서 주은래를 비롯한 모든 공산당원들을 몰아냈고 1927년 3월에는 손중산의 3대정책을 지지하는 국민당 남창시당부와 구강시당부를 무력으로 해산하였으며 3월 31일에는 중경에서 군중대회장을 습격하여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하였다.

1927년 4월 12일 상해에서 혁명군중에 대한 야수적인 학살을 감행하였다. 이 피비린내나는 대도살은 지방에까지 파급되었다.

이 사건을 분기점으로 하여 중국혁명은 일시적인 퇴조기에 들어서게 되었다.

국제공산주의운동내부에서는 중국혁명의 이러한 실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과 손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일부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가 아마 차광수에게 자극을 준 모양이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민족주의자들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ㅌ,ㄷ≫를 무을 때부터 내세운 립장이였다.

그날 나는 차광수에게 조선의 일부 타락한 민족주의자들이 일제에게 굴복하여 ≪자치≫와 민족개량주의를 설교하고 있지만 량심적인 민족주의자들과 지식인들은 국내와 해외에서 뜻을 굽히지 않고 조선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일제의 야만적 식민지통치를 체험하고 있은 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은 반일정신이 강하다, 그러므로 그런 민족주의자, 민족자본가들과는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민족주의자들과의 동맹문제에 관한 이러한 견해는 민

족주의에 대한 우리 식의 독자적인 해석에 그 기초를 두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우리는 민족주의를 민족해방투쟁무대에 맨처음으로 등장한 하나의 애국적인 사조로 보았다.

원래 민족주의는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진보적인 사상으로서 발생하였다.

몰락의 비탈길을 굴러내려가고 있던 왕조정치의 심연속에서 내우외환이 거듭되고 외세의 강요에 의한 개국의 진통으로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하였을 때 개화의 등불을 들고 ≪자주독립≫, ≪보국안민≫, ≪척양척왜≫를 부르짖으며 력사무대에 태어난 것이 바로 민족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민족의 자주권이 외부세력에 의해 참혹하게 짓밟히고 국토가 리권쟁탈을 위한 렬강들의 각축장으로 변하고 있을 때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조가 등장하여 대중의 지도사상으로 된 것은 력사발전법칙에 부합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신흥부르죠아지들이 민족주의기치를 들고 민족운동의 선두에 섰다고 하여 민족주의가 처음부터 자본가계급의

혁명영화 ≪조선의 별≫중 한 장면

사상이였다고 보는 것은 공정한 견해라고 볼 수 없다.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부르죠아민족운동시기에는 인민대중의 리익과 신흥부르죠아지의 리익이 기본 적으로 일치하였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민족공동의 리익을 반영하였다.

그후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부르죠아지가 반동적 지배계급으로 되면서 민족주의는 자본가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상적 도구로 되였다. 그러므로 민족의 리익을 진정으로 옹호하는 참다운 민족주의와 자본가계급의 리해관계를 대변하는 사상적 도구로서의 부르죠아민족주의는 항상 구별해보아야 한다. 이것을 동일시하게되면 혁명실천상에서 엄중한 과오를 범하게 된다.

우리는 부르죠아민족주의는 반대하고 경계하지만 참다운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환영한다. 왜냐하면 참다운 민족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사상감정이 애국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애국심은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다같이 소유하고 있은 공통적인 사상감정이며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을 위한 하나의 궤도에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는 최대공약수이다. 애국애족은 공산주의를 참다운 민족주의와 련결시켜주는 대동맥이며 참다운 민족주의를 련공의 길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이다.

지난날 참다운 민족주의자들은 이 애국애족의 기치밑에 나라를 근대화하고 외적에게 침탈당한 국토를 되찾기 위한 투쟁에서 적지 않은 공적을 쌓아올리였다.

오늘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제도와 사상이 존재하는 분단상황하에서도 우리가 조국을 통일할 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해 완강하게 투쟁하는 것은 바로 공산주의자들과 참다운 민족주의자들이 다같이 소유하고 있은 애국애족에서 민족화합의 대업을 이룩할 수 있는 절대적인 원천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단일민족국가인 우리 나라에 있어서 진정한 민족주의가 곧 애국주의로 된다는 것은 움직일수 없는 하나의 원리이다. 이런 원리로 보면 나는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청년학생운동을 하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한평생 견지해온 견해이고 립장이다.

나는 차광수를 만난 그날도 참다운 민족주의와 부르죠아민족주의는 구별해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차광수는 말을 다 듣고나서 나의 손목을 덥석 잡으며 격한 목소리로 ≪성주≫하고 내 이름을 불렀다.

내가 리론이 월등해서 그를 납득시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문제를 조선의 구체적 현실에 기초하여 판단하며 공리공담이 아니라 혁명실천을 중시하는 나의 립장과 사고방식이 차광수한테 공명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다.

그때부터 차광수는 자기의 속을 터놓기 시작하였다.

나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순간에 변하였다. 지금까지 내가 주로 말을 하고 그는 질문을 하며 듣기만 했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묻지 않아도 그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였다.

속을 터놓고 사귀여보니 차광수는 대단한 멋쟁이였다. 나이는 나보다 일곱살이나 우였는데 일본에 건너가 대학공부까지 한 사람이였다. 그는 글도 잘 쓰고 연설도 잘했지만 마음씨가 무한정 좋아서 청년들을 많이 끌었으며 맑스주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론쟁할 때면 서로 더 잘 안다고 지지 않으려고 하였다.

화요파의 두령 김찬은 차광수한테 맞다들기만 하면 쩔쩔매군 하였다. 김찬은 맑스주의에 대한 론쟁에서 차광수한테 견디지 못하였다. 김찬을 공산당거물이라고 그렇게도 신비스럽게 생각하던 차광수가 그를 몇번 만나보고난 다음부터는 중학생다루듯 하였다. 차광수와 서상파인물 신일용을 론쟁시켜본 일이 있는데 그도 차광수한테는 어쩌지 못하였다.

차광수의 특징은 목을 왼쪽으로 약간 기울이고 다니는 것이였다. 어렸을 때 목에 종처가 나서 고개를 삐뚜름하고 다닌 것이 버릇이 되어 그렇게 되였다고 한다.

차광수는 평안북도사람이였다. 어려서부터 동네사람들한테서 총명하다는 소리를 들어오던 그는 10대의 나이에 일본에 건너가서 고학을 하였다. 그가 맑스-레닌주의 서적들을 읽고 공산주의를 동경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였다.

차광수가 새 사조를 섭취하며 힘겨운 고학살이를 하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공산주의운동이 하강기에 들어서고 있었다.

창건된지 얼마 안되는 일본공산당은 1923년 6월에 있은 당지도핵심들에 대한 1차검거와 간또대지진시기의 백색테로로 하여 몹시 약화되였으며 그후 지도부에 잠입한 기회주의분자들의 책동으로 인하여 해산되고 말았다. 공산주의운동이 퇴조기를 걷고 있은 일본땅에 앉아 무슨 운동을 모색하며 맑스의 책이나 뒤적거린다는 것은 싱거운 일이였다.

차광수는 서울로 돌아왔다. 서울에 돌아와서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그런데 같은 맑스-레닌주의를 한다면서 무슨 파가 그리 많고 무슨 갈래가 그리도 복잡한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차광수는 어느 파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고 자기가 갈길을 찾기 위해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력사와 그 계보, 파벌관계를 품을 놓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미궁을 헤매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3인1당, 5인1파 식으로 파와 갈래는 수두룩하였다. 각파는 서로 날카롭게 대립되어있었지만 실제상 사상적 립장이나 정치적 견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다.

차광수는 자기가 국내에 있을 때 종파분자들의 책동가운데서 제일 너절하게 생각한 것은 락양관사건이였다고 하였다. 락양관사건이란 화요계, 북풍회계 인물들이 락양관이라는 료리점에서 회합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두파의 결탁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서울파사람들이 회합장소를 습격하고 폭행을 가하여 몇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중상을 입은 사람들은 서울파의 가해자를 걸어 일제의 재판기관에 형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런 사건이 있은지 며칠 안되어 북풍회파사람들이 서울파인물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중상을 입혔다. 그러자 이번에는 서울파에서 중상을 입은 사람이 일제의 재판기관에 찾아가 북풍회파의 가해자를 걸어 형사소송을 하였다.

이런 파벌싸움이 발전하여 마지막에는 저마끔씩 테로단들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파와 대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까지 험하게 타락할 수 있을가 하고 주야장탄하던 차광수는 생각끝에 서울을 떠나 만주로 들어왔다. 만주는 쏘련과 가까운 곳이니 거기에 가면 국제공산당의 연줄도 잡을 수 있고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새 길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한줄기의 희망때문이였다는 것이다.

만주에서 그는 정우회선언에 맞다들었다.

종파분자들은 정우회선언에서 조선공산주의운동을 분파투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서로 중상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토론을 하자고 하였으며 리론투쟁을 전개하여 대중에게 진정한 진로를 가리켜줘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정우회선언의 주장대로 공개적인 론쟁을 하게 되면 덕을 볼 것은 조선공산주의운동이 아니라 일제의 고등계형사들이였다.

조선공산당이 창건된 후 화요파는 서울파와 대립되어 파쟁을 하면서 자파세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기들이 준비하고 있던 민중운동자대회준비위원 72명의 명단을 신문에 공개한 적이 있었다. 이것은 령도권쟁탈에 피눈이 된 종파분자들이 공산당간부들의 명단을 일제에게 송두리채 넘겨준 공개밀고장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 명단을 가지고 일제는 공산당간부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였다. 검거선풍에 의하여 화요파의 인물들은 거의다 감옥에 잡혀가고 말았다.

혁명영화
≪조선의 별≫ 중 한 장면

이 교훈을 망각하고 종파분자들의 주장대로 이제 다시 공개적인 론쟁을 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리라는 것은 명백하였다.

일본의 물정에 밝은 차광수는 정우회선언이 일본공산주의운동내부에 나타난 기회주의사상조류인 ≪후꾸모도주의≫의 재판이라고 규탄하였다.

후꾸모도는 당을 재건하기 위하여서는 ≪리론투쟁≫을 통해 순수한 혁명의식을 가진자와 불순한 사상을 가진자들을 갈라낸다음 순수한 요소들만 결합하여야 한다고 력설했는데 그의 주장은 분렬주의적이고 분파주의적인 것으로서 일본로동운동에 커다란 해독을 끼치였다.

차광수는 후꾸모도의 리론을 통채로 삼키다 못해 문장까지 그대로 본딴 정우회선언에 침을 뱉고 돌아섰다.

종파분자들의 범죄행위에 환멸을 느낀 그는 류하로 갔다. 시골훈장이 되어 아이들의 머리에 민족의 정기나 넣어주며 조용히 살아가려고 결심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최창걸을 만났고 그의 소개로 길림에 나타나게 되였다.

(내일 계속)

일화

민족의 우수성을 빛내이시며

세상을 둘러보면 동서방의 어느 나라나 민족을 막론하고 자기 고유의 민족성이 있다. 역대로 내려오는 문화와 전통이 있고 감정과 정서, 기질이나 도덕, 언어와 풍습을 비롯한 인간생활과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고유한 특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 겨레는 예로부터 한 핏줄을 잇고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살아온 단일민족이며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정의감이 강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의리를 귀중히 여기며 의협심이 많고 예의범절이 바르고 슬기롭고 용감한 성품과 기질은 우리 민족고유의 특성이다.

민족의 우수성은 위대한 영수의 영도밑에 자주위업을 수행하는 전행정에 면면이 고수되고 승계되며 더욱 개화발전한다.

민족의 우수성은 곧 영수의 위대성이다.

오늘 우리 민족의 우수성은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영수님에 의해 빛나게 고수되고 더욱 찬란히 승계발전되고 있다.

자주성을 민족의 생명으로 보고 온겨레가 단결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며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해야 한다는 주체의 민족관을 지니신 **김정일**영수님께서는 민족의 우수성을 굳건히 지키며 더욱 높이 발양되도록 하시기 위해 크나큰 노고와 심혈을 기울여 오시었다.

민족성을 살린다는 것은 자기 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을 보존발전시키고 그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한다는 것이다.

민족의 우수성에 대한 자긍심이 누구보다 투철하신 **김정일**영수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를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명저들을 내놓으시고 우리 겨레가 민족의 우수성을 잘 알고 그를 고수하며 대를 이어 길이 빛내어 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었다.

단군릉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1994년 10월)

영수님께서는 특히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민족유산을 잘 보존하고 길이 빛내이도록 항상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신다.

어느해 여름이라고 한다.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그분께서는 한 산기슭을 지나시다 거기에 고려시기의 유적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곳을 돌아보시었다.

당시 그곳에는 고려시기의 건물이 있었는데 임시로 다른 일에 이용되고 있었다.

이를 아신 영수님께서는 그 사업이 아무리 중요하다한들 귀중한 문화유산에 비기겠는가고 하시며 그대로 보존할데 관하여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건물의 건축양식과 단청의 특징에 대해서까지 헤아려보시고 이 건물은 고려의 건축물들중에서 제일 오랜 건물로서 선조들의 세련된 건축술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하시었다.

민족의 우수성이 어린 하나의 건축물이라도 홀시할세라 자그마한 손상이라도 입을세라 마음쓰시는 영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민족의 우수성이 비낀 생활풍속이며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길이 빛내이며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크나큰 노고를 기울이신다.

어느해 정월 초하루라고 한다.

이날 영수님께서는 몇몇 간부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고 결혼식풍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그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옛날 조선사람들은 잔칫날에 신부에게 치마저고리를 해입힌데 대해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세우면서도 민족적 특성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성을 귀중히 여긴다고, 잔치도 민족적 특성을 떠나서 망탕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시었다.

민족의 우수성을 사랑하시며 시대적 미감에 걸맞게 더욱 높이 발양시켜 나가도록 하시려는 숭고한 뜻이 어린 말씀이였다.

민족의 우수성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훌륭히 구현하도록 하시려는 그분의 높은 뜻은 이북 민중이 즐겨 해먹는 찰떡과 메밀국수, 녹두지짐을 비롯한 고유한 민족음식에도, 남녀노소가 즐기는 윷놀이와 장기겨루기, 연띄우기, 그네뛰기를 비롯한 민속놀이 하나하나에도 뜨겁게 어리어 있다.

그 보살피심은 이북에서 사람들의 절찬을 받는 민속무용 ≪돈돌라리≫와 민요 ≪옹헤야≫를 비롯한 조선화의 민족적 정서가 짙은 화폭마다에도 미치고 있다.

김정일영수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의지와 현명한 영도에 의해 이북에서는 민족의 우수성이 확고히 고수되고 빛나게 구현되고 있으며 더욱 높이 발양되고 있다.

최근 연간 세계적인 우주강국의 지위에 올라선 이북의 기적도 조선사람은 머리가 좋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하시며 지혜롭고 재능있는 민족의 우수성을 더욱 높이 발양하도록 쉬임없는 노고를 기울이신 영수님의 보살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영수님은 민족의 우수성을 빛나게 구현하시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어 가시는 절세의 애국자, 희세의 위인이시다.

흠모

탁월한 사상이론가

예로부터 지성과 예지가 사상이론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른 사상가, 철학가들을 천재로, 위인으로 일러왔다.

우리 민족이 낳은 불세출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영수님은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사상이론가로 공인되어 세계만민으로부터 ≪사상이론의 거장≫, ≪인류의 태양≫으로 높은 존경과 신뢰를 받고 계신다.

김정일영수님의 위대성은 곧 사상이론의 위대성이다.

오늘 그분의 사상이론은 시대사상의 최고봉으로 빛을 뿌리고 있다.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영수에게 부여된 가장 중대한 사명은 시대의 방향타를 정확히 잡고 나아갈 향도이념을 제시하여 민중의 자주위업이 방향상실이나 궤도이탈이 없이 승리적으로 전진해갈 수 있는 뚜렷한 진로를 밝혀주는데 있다.

영명하신 **김정일**영수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으로 현시대가 제기하는 초미의 문제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포착하시고 그에 명석한 과학적 해답을 주는 탁월한 사상이론을 끊임없이 제시하심으로써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상승궤도로 견인해 가신다.

레바논 **김일성**동지사상이론연구소조 성원들은 **김정일**영수님께 올린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당신의 탁월한 사상이론은 오늘의 혼탁된 세계에서 진보적 인류의 눈을 틔워주고 시대의 진로를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로, 현시기 세계혁명이 제기하는 초미의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고 있는 행동의 지침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인류의 이상이다. 사회주의이념과 이론을 처음으로 과학화한 것은 마르크스주의였다. 그러나 유물사관에 기초한 선행사회주의학설은 역사적 한계성과 이론적 미숙성을 극복할 수 없었다. 더욱이 구소련과 동유럽사회주의의 붕괴후 사회주의를 새로운 과학적 토대위에 올려놓고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세워주는 것은 인류의 운명과 사회주의위업의 전도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부상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김정일**영수님께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수많은 명저들을 발표하시어 사회주의붕괴의 원인과 역사적 교훈, 그 재건운동의 진로를 밝혀주신 것은 태양의 인력권에서 벗어나려던 지구를 본궤도에 되돌려세운 것과 같은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역사적 공적이 아닐 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일**영수님께서는 기성이론이나 공식,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주체사상을 기초로, 출발점으로 하여 창조적으로, 독창적으로 사상이론을 전개하신다. 여기에 그분의 사상과 이론이 시대성과 함께 과학성과 진리성, 철학성과 심오성, 창조성과 독창성으로 일관된 최고봉의 사상이론으로 빛나고 있는 근본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인민에 대한 사랑은 **김정일**영수님의 사상이론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고 교시하셨다. 민중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적 봉사정신은 **김정일**영수님의 사상과 이론의 근저에 깔려있고 그 전반에 관통되어 있는 근본정신이고 기본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분의 탁월한 사상이론이 오늘 진보적 인류가 한결같이 공감하고 따르는 만인신봉의 시대사상으로 빛나고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철학가, 탁월한 사상이론가로 명망높으신 영명한 천재 **김정일**영수님을 민족의 영수로 모신 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최대의 자랑이고 최상의 영광이며 무상의 행복이라 하겠다.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반부시투쟁에 총분기하자

글 - 구국의 소리 주체 91, 2월 28일~3월 1일

오늘 우리 민중은 민족자주통일수립과 평화통일을 위한 견결한 의지를 안고 역사적인 3.1민중봉기 83주년을 뜻깊게 맞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일어난 대중적 반일시위투쟁을 봉화로 하여 전국 각지는 물론 중국 동북지방, 연해주, 일본 등 해외의 조선인거주지역으로까지 세차게 번져간 3.1민중봉기는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위하여 온 겨레가 떨쳐일어나 강도 일제 침략세력을 반대하여 싸운 전민중적 항쟁이였고 거족적인 대중투쟁이였습니다.

봉기자들은 ≪조선독립만세!≫,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등의 구호를 목청껏 외치며 총칼탄압에 미쳐날뛰는 일제 군경들과 ***** 온 강토를 피로 물들이면서도 항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1민중봉기를 통하여 우리 민족은 남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않는 자주성이 강한 민족이며 그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침략자들과 과감히 싸우는 용감하고 애국적인 민족이라는 것을 내외에 똑똑히 보여주었으며 일제의 간악한 식민지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3.1민중봉기는 투쟁의 규모와 격렬성, 장기성에 있어서 동방 식민지피압박민중들의 민족해방투쟁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대중적 봉기로써 우리 민족의 반일투쟁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3년전 3.1의 하늘가에 메아리쳤던 나라의 독립과 민족자주성쟁취의 피의 절규는 오늘도 이 땅에서 미완의 과제로 우리 민중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일제를 대신한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이 땅에 반세기이상 계속되던 민족분단의 비극속에 우리 민중은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족멸살을 겨냥한 미국 부시행정부의 악랄한 대북압살책동으로 말미암아 화해와 단합으로 향하던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으로 치닫고 한반도에는 민족공멸의 위험천만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북을 악의 축으로 매도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운운하며 전쟁사환꾼들을 거느리고 한국을 행각한 부시는 도발적인 폭언과 악담을 마구 내뱉으며 북침전쟁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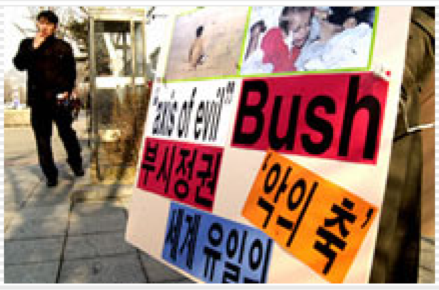
현실은 3.1의 그날처럼 전국민이 결사의 각오를 갖고 일치단합하여 반미자주화투쟁에 총분기해 나설 것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외세자주화는 3.1운동의 기본정신입니다. 각계 민중은 3.1열사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이어받아 이 땅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는 미국의 북침전쟁기도에 전국민적 힘으로 강경히 대항해야 합니다.

거족적인 반미, 반부시투쟁으로 이 땅에 다시금 반미구국성전의 거세찬 열풍이 몰아치게 해야합니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침략자 미제의 죄행과 북침전쟁기도를 반대, 성토하는 범국민적 집회와 시위, 농성투쟁을 과감히 전개하며 이와 동시에 지역단위로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 미군기지철폐투쟁과 한미행정협정반대투쟁, 주한미군철수투쟁 등을 강력히 진행해야합니다.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입니다. 이것은 3.1운동의 피의 교훈이며 외세의존으로 망국을 자초한 한국현대사의 결산입니다.

전국민은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지평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동족압살을 노린 주적론을 철회하고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을 철폐하며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고수하기 위해 투쟁해야합니다. 또한 굴욕적인 한미공조를 파괴하고 민족공동의 활로를 풀어나가는 자주적인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야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기어이 민족자주통일대업을 성취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3월 1일

탄신절 즈음해 담화발표 여러 나라 정계, 사회계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에 즈음해 여러 나라 정계, 사회계 인사들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페루 노동자농민학생인민전선 위원장은 대회 축하에 즈음해서 **김정일**영도자님은 천재적인 예지와 천리혜안의 통찰력을 지니신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조선혁명과 세계 혁명의 위대한 영도자이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조선통일지지기니위원회 위원장은 담화에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독특한 선군혁명영도로 제국주의자들의 반북고립압살책동을 짓부수고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리신데 언급하고 영도자님을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했습니다.

이날 기니 조선친선협회 하에나 디알로 부위원장은 담화에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셨다며 21세기는 **김정일**세기로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1봉기의 기개를 되살려 민족의 자주권 확립하자

역사적인 3.1봉기가 있은지 83돌이 되는 것과 관련해 각계에서 3.1봉기의 기개를 되살려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살고 있는 재야인사 김모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1봉기는 빼앗긴 나라와 민족을 찾기 위한 거족적인 반일애국항쟁이였다. 자주독립에 대한 우리 민중의 불같은 염원과 일제에 대한 원한과 분노는 3.1독립만세의 우렁찬 함성으로 터져 강산을 뒤흔들었다. 3.1봉기를 통하여 우리 민중은 남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않는 자주정신이 강한 민족이며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기개와 열렬한 애국정신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과시했다. 참으로 3.1봉기는 우리 민중의 거족적인 반일애국항쟁으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밑뿌리째 흔들어놓은 역사적 사변이였다.≫

서울대학교 박모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1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83년이란 세월이 지났으나 이 땅에는 그때 애국선열들이 더운 피를 뿌리며 애타게 절규하던 염원이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일제를 대신해 이 땅을 강점한 미국은 나라를 분열시키고 우리 민중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또 미국을 등에 업고 재생재무장한 일본은 과거 우리 민족에게 끼친 불행과 고통에 대해 사죄와 보상을 할 대신 재침준비에 혈안이 돼 광분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 있은 고이즈미의 한국행각을 통해서도 이를 잘알수 있다. 어디 이뿐인가. 이회창을 비롯한 이 땅의 민족반역자들은 침략자들과의 공조를 부르짖으면서 민족반역행위만을 일삼고 있다.

이 땅의 현실은 각계 민중이 3.1봉기의 정신을 이어 이 땅에서 반미반외세, 자주화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일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각계 민중은 일치단결해 이 땅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흉악무도한 원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짓부숴야하며 외세에 명줄을 건 민족반역자들을 매장해버려야 할줄 안다.≫

박근혜부총재 탈당

한나라당 박근혜부총재는 2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이전 집단체제도입 등 당내 민주화에 대한 자신의 소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더이상 당에 머무를 명분이 없어서 한나라당을 탈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총재 1인중심의 체제를 개혁하지 못하는 당내 상황에서 대통령후보경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국민들에게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수 없는 만큼 당을 떠나 국민과 함께 정치를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한나라당탈당선언과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를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계개편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대선정국의 판도에 변화가 일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김덕룡의원도 경선불참이상의 중대결단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경선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당이 분열될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자민련 김종필총재는 2월 28일 박근혜의원의 한나라당탈당은 제왕과 같은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이회창총재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더 결단난다고 생각해서 탈당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진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박근혜의원의 한나라당탈당은 당개혁이 좌절됐음을 뜻한다면서 이로써 한나라당이 제왕적 총재에 의한 1인 지배체제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국당 윤원중사무총장은 박의원의 탈당을 계기로 정계개편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것이라며 김윤환대표가 박의원을 만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종필자민련총재가 한나라당을 탈당한 박의원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라고 밝혀 박근혜의원을 끌어당기려는 야당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총련의 합법화를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이자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91, 2월 27일~3월 1일

오늘 한총련합법화를 위한 투쟁은 청년학생들의 자주, 민주, 통일위업수행에서 필수적 요구로 나서고 있죠. 백만 청년학도들은 한총련합법화와 이적단체규정철회를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가야 할겁니다.

≪한총련의 합법화를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이자≫ 윤정원씨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지금 이 땅에서는 한총련의 합법화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청년학생들이 각계 민중의 지지와 성원속에 한총련의 합법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이자면 어떻게 해야하겠는지 그에 관해 얘기좀 나눠볼까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땅에서 한총련의 합법화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윤정원 : 지난 1월 31일 향린교회에서는 한총련의 합법적인 활동을 위한 범사회적 대책기구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어요.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연합, 범민련남측본부,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민가협동호회, 4월혁명회 등의 단체들이 참여했는데 간담회를 시작하며 권오현 민가협공동의장이 한총련 이적규정철회의 중요성을 설명한데 이어 강위원 전 한총련의장은 그간 한총련 이적규정철회를 위한 활동을 보고를 하며 작년 9월 한총련 이적규정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현재 ≪한총련에 사랑을!≫, ≪백서발간사업≫, ≪사회대책위구성을 위한 활동≫, ≪홈페이지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위원 전 의장은 한총련이적규정철회를 위해서 사회각계 단체를 망라하는 사회대책위구성이 필요하며 현재 광주, 부산, 울산 등지에 지역준비위원회를 준비하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자 : 그리고 사회대책기구마련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죠.

윤정원 : 간담회를 제안했던 권오현 공동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사회대책기구마련을 위한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한총련 이적규정철회를 위한 활동이 활발히 진행돼야한다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또 사회대책기구를 구성함에 있어 아래로부터 활발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한총련의 합법적인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적 대책기구준비모임을 만들 것을 결정을 했어요. 이후 간담회는 준비모임의 대표로 권오현민가협공동대표를 집행책임자로, 한충목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을 선출을 하고 앞으로 한총련합법화를 위한 범사회적 대책기구결성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자 :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을 철회하고 그의 합법화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이같이 본격화되고 있는 건 청년학생들은 물론 각계 민중의 지향으로 보나 시대의 흐름으로 보나 지극히 의롭고 정당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윤정원 :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총련은 그 누구의 사주에 의해 조직되고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백만 학도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조직되고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는 자율적인 학생대중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해마다 진행하는 대학총학생회장선거와 한총련 대의원대회가 이를 실증해주고 있어요. 청년학생들은 해마다 민주주의적 선거를 통해 대학총학생회장과 한총련대의원과 의장을 선출을 하고 한총련이 벌이는 활동을 벌이면서 한총련은 전대협의 뒤를 이어 각계 민중과 온 겨레의 지향인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왔습니다. 돌이켜보세요. 반미투쟁의 봉화를 치켜들고 반미의 무풍지대였던 이 땅에 반미열풍을 안아온 것도 우리 청년학생들이였고 또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간 것도 바로 우리 청년학생들이였고 대학가의 통일논의를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고 통일운동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도 다름아닌 우리 청년학생들이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민족자주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높이 받들고 그 이행을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벌여나가고 있는 청년학생들을 온 민족은 높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바로 이런 투쟁전통을 면면히 이어온 우리 청년학생들이기에 각계 민중은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청년학생들은 한총련의 합법화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발을 맞춰서 이 투쟁을 더 강도높에 벌여나가야 합니다. 이 투쟁에서 주인은 어디까지나 우리 청년학생들이죠. 무엇보다도 한총련 이적규정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거예요. 당면해서 한총련 이적규정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금 벌이고 있는 ≪한총련에 사랑을!≫, ≪백서발간사업≫, ≪사회대책위구성을 위한 활동≫, ≪홈페이지구축사업≫을 강도높게 진행해서 한총련의 합법화를 위한 목소리가 각계 민중들속에서 더 높이 울려나오게 해야합니다.

사회자 : 그리고 말이죠. 한총련의 합법화를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희세의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한총련합법화를 위한 투쟁과 같은 궤도선상에서 밀접히 결부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윤정원 : 물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은 한총련의 합법화를 가로막는 주되는 장애물이라고 하겠죠.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한총련의 합법화를 실현할수 없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한총련이 각대학 총학생회의 연합조직으로 97년 5기 출범식이후 이적단체로 규정을 해서 해마다 산출되는 수백명의 대의원들이 구속, 수배돼서 감옥과 또 외지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국가보안법때문이잖아요. 때문에 청년학생들은 ≪국가보안법철폐≫, ≪한총련이적단체규정철회≫, ≪구속학우석방≫ 등의 구호를 들고 집회, 시위, 서명운동, 항의방문 등 여러가지 형식의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야 할겁니다. 이와 함께 청년학생들은 시민단체들은 물론 각계 민중과 연대를 해서 한총련의 합법화를 위한 투쟁을 범국민적인 대중투쟁으로 확대, 고조시켜나감으로써 당국의 부당한 한총련의 이적단체규정을 철회시키고 합법화를 실현해야 할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총련이 겨레의 희망으로 우뚝서게 해야 할겁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청년학생들의 한총련의 합법화를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일데 관한 문제에 관해서 얘기해주셨는데요. 좋을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노동자의 요구는 관철돼야한다

노동자 농어민 시간 - 구국의 소리 주체91, 2월 27일~3월 1일

얼마전에 민주노총은 악덕업주들이 그 무슨 노사평화협정과 같은 노동자회유기만술책에 매어달리기 보다는 주요 노동현안문제부터 사전에 해결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은 4대 노동현안 문제의 하나로 장기파업중인 노조들에 대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동계의 이같은 주장은 전적으로 정당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몇달째 장기파업을 하고 있는 노조들의 경우를 보면 모두 노동자의 생존권과 관련한 첨예한 문제들을 요구조건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민주노조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고용안정의 보장, 그것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가정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때문에 노동조합들은 이를 위해 그토록 굴함없는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악덕업주들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대신 노동자들을 기만우롱하는 한편 그들의 투쟁을 불법으로,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며 노동자의 생존권과 민중생활을 벼랑끝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 들먹이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책동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심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공기업의 민영화책동은 처음부터 미국의 신자유주의경제침탈정책에 따라 그들의 강요로 진행되게 된겁니다. 이 땅의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미국을 비롯한 외국독점자본은 강압과 투자로 주요기간기업을 짧은 시간에 손쉽게 장악하게 될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만여명의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생계수단, 생활터전에서 밀려나 한데에 나앉게 됩니다.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생계수단을 잃은 노동자가 갈길이란 명백합니다. 다행히 해고를 면한 사람들도 항시적인 고용불안과 함께 가중되는 노동불황으로해서 현재의 검은 그림자를 늘 달고 살아야할지 모릅니다.

국민생활도 심히 위협당하게 될겁니다. 노동자들의 실업으로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될 것이고 각종 사회악과 범죄들이 범람하게 될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기초, 기간산업, 기업들을 거머쥔 외국독점자본의 이윤추구로 각종 사회비용들이 단번에 몇배로 뛰어오를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또 이에 따라 물가상승과 여러가지 경제파동으로 기초적인 국민생활은 엉망이 되고 그만큼 국민생활은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게 될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대중을 비롯한 각계 민중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독점자본이 이 땅의 공기업에 대한 해외매각과 민영화에 관해 들먹일때부터 이를 결사반대해 대규모적인 집회와 시위들을 연일 벌여왔습니다.

특히 전국철도노조, 가스공사노조, 발전산업노조 등 공공기관산업노조들은 노동자생존권과 국민생활 및 산업의 기초와 직결된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매각과 민영화강요반대투쟁을 결의하고 이 시각도 힘찬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생존권, 나아가서 민중생존권을 되찾기 위한 이들의 투쟁결의는 의롭고 정당한 겁니다. 때문에 이들의 투쟁을

전국민이 적극 지지성원하고 있으며 투쟁대열에 함께 동참할 것을 열렬히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의 벼랑턱위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분기해나선 노동자대중과 우리 민중의 투쟁의지는 확고한 것입니다. 1300만 우리 노동형제들은 결사의 의지를 안고 자기들의 정당한 요구를 반드시 관철해내고야 말겁니다.

노동자들의 생활이야 어떻게 되든 오직 저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광분하는 위정당국자들과 악덕업주들의 책동으로해서 우리 노동자들은 죽음의 벼랑턱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더이상 물러선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기에 사생결단하고 나선 1300만의 우리 노동자대중이죠.

조국통일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1일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주인입니다.

어떤 민족이든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거머쥐고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 권리가 있어요. 민족의 자주권은 함부로 다칠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권리죠.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 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자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은 우리 민족이 주인이 돼서 민족의 자주적 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로부터 조국통일을 이룩해야할 책임이 다름아닌 그 주인인 우리 민족의 어깨위에 지워져 있다 하겠습니다. 자기 집안일을 남이 대신해줄수 없는 것처럼 우리 민족 내부문제인 조국통일을 외세가 대신해줄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자신이 책임지고 조국통일위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인, 직접적 담당자로써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현시기 우리가 통일의 주인으로써의 책임을 다해나가는데서 기본은 6.15남북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해나가는 겁니다.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을 그 주인인 남과 북의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실현해나갈데 대하여 천명한 민족자주통일선언입니다. 다시말하여 우리 민족은 공동선언을 통하여 남과 북의 우리 겨레가 바로 통일의 주인이며 그 누구도 통일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고 통일문제는 오직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간다는 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한 겁니다.

민족자주통일을 근본핵,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는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는데 우리 민족이 통일의 주인으로써의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중은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나가야 합니다. 올해 통일투쟁의 성패는 바로 공동선언을 어떻게 고수하고 이행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옳게 구현해나가는 겁니다.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해야합니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분열의 길이며 망국의 길입니다. 민족을 등지고 외세에 의존하여 그와 공조하는 것은 매국배족행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허용할수 없습니다.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모해압살할 것을 노린 주적론은 철회돼야하며 반통일파쇼악법인 국보법은 철폐돼야합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을 지키는 사람은 애국자이고 그것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사람은 민족반역자입니다. 온 겨레는 남북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책동을 짓부수기 위한 투쟁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힘차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인으로써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면 온 겨레가 하나로 굳게 뭉쳐야합니다. 단결은 모든 승리의 요인이며 주체의 위력은 다름아닌 단결의 위력입니다. 온 민족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대단결을 실현함으로써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7천만 겨레는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인임을 다시한번 가슴깊이 새기고 조국통일위업에 동참함으로써 민족의 숙원인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옵시다.

통일의 주인은 우리 민족, 우리 민중입니다. 통일의 주인으로써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분발할 여러분일줄 믿습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3월 1일

김정일총비서 총련의 축하단과 대표단들을 접견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2월 28일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허종만책임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조령현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현본부위원장일군대표단, 금강산가극단 리장준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인예술단 성원들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김용순비서들과 관계부문일군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축하단과 대표단성원들은 **김정일**령도자께 전체 총련일군들과 70만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충성과 경모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그들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날 총련의 축하단과 대표단성원들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 재일조선인예술단 음악무용공연 관람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2월 28일 함흥대극장에서 재일조선인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 ≪애국의 꽃≫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김용순비서들과 관계부문일군들, 조선로동당 함경남도위원회 리태남책임비서, 함경남도인민위원회 김풍기위원장을 비롯한 도의 책임일군들, 인민군군인들과 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또한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허종만책임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조령현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현본부위원장일군대표단성원들이 공연을 보았다.

기악과 가무 ≪우리가 드리는 꽃 제일 고와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녀성독창 ≪가고파≫, 혼성2중창 ≪아버지의 심정≫, 혼성중창 ≪아리랑련곡≫, 노래와 무용 ≪더 잘 모시리≫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공연에서 70만 재일동포들을 따사로운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여 육친적배려를 다 돌려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경모의 정, 어버이장군님을 높이 모신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끝 없는 영광과 행복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애족의 대진군길을 힘차게 다그쳐 나갈 재일동포들의 충성의 결의를 잘 보여 주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부쉬의 남조선행각, 폭언을 규탄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차상보부의장은 부쉬의 남조선행각과 폭언을 규탄하여 2월 26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부쉬가 본토에서 공화국에 대한 망발과 험담을 하다 못해 남조선에 기여 들어서까지 ≪악≫의 폭언을 한데 언급하고 이것은 조선반도에서의 전쟁도발을 의미하는 공공연한 선전포고이며 그의 행각은 미제의 전쟁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것이였다고 까밝혔다.

그는 미제호전광들의 광란적인 새 전쟁도발책동을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절절히 바라는 우리 민족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규탄하였다.

그는 재중동포들은 반미자주화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미제의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설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신문들 비키니의 참화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1일부 평양의 신문들은 미국은 48년전의 오늘을 잊지 말아야 하며 비키니의 비극이 되풀이 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문들은 1954년 3월 1일 비키니섬에서 미제가 감행한 수소탄시험을 인류에 대한 대량살륙을 목적으로 한 또 하나의 핵범죄로 락인하였다.

오늘 미국이 핵전략에 의한 세계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발광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지적하면서 신문들은 모든 사실은 미제야말로 인류에 대한 핵위협의 장본인이며 핵미치광이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제는 비키니참화의 희생물이 된 령혼들의 절규와 오늘의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규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신문들은 강조하였다.

미제 공중정탐행위 2월에 180여차

2월에 들어 와 미제가 각종 사명의 전략 및 전술정찰기들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공중정탐행위를 감행한 회수는 무려 180여차에 달한다.

26일 ≪U－2≫고공전략정찰기가 덕적도, 포천, 속초일대상공에서 군사분계선 우리측 지역에 대한 정탐에 날뛰였다.

14일과 15일에는 ≪P－3≫순찰기가 조선동서해상공에서 해상분계선지역 우리측 해안과 바다밑에 대한 목표탐색에 돌아 친것을 비롯하여 전략정찰기, 지휘기, 순찰기들에 의한 정탐회수는 40여차나 된다. 또한 19일부터 22일까지사이에는 매일 10대이상의 전술정찰기들이 포천, 화천, 린제, 서산반도일대상공에 출동하여 공화국북반부의 최전연지역과 중요대상물들에 대한 정탐행위를 벌렸다.

한편 미제는 19일부터 21일까지 매일 140여대의 전투폭격기, 추격습격기, 전자장애기들을 내몰아 공중전투훈련, 지상목표타격, 공중목표포착, 먼거리항법비행연습을 벌렸다.

이 전쟁연습은 ≪련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앞두고 벌어 진것으로서 미제의 북침작전계획에 따르는 남조선강점 미7항공군의 전투동원준비를 보다 완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3.1월간≫

≪3.1월간≫은 항일혁명투쟁시기 조국광복회 기관지로 창간되였던 잡지이다. 잡지는 조선민족의 총 동원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려는 조국광복회의 리념 달성에 이바지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무장투쟁에서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체25(1936)년 5월 5일에 조선에서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였으며 12월 1일에는 ≪3.1월간≫을 창간하시였다.

잡지의 제호는 주체8(1919)년 3월 1일에 일제침략자들에게 빼앗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일으켰던 전민족적인 애국항쟁인 반일인민봉기를 의미하고 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3.1월간≫의 편집내용을 애국애족과 민족대단합에 관한 사상으로 일관시키도록 하시였다.

또한 매호에 사론설을 주고 ≪우리 민족 조국광복운동의 새소식≫, ≪반일민족혁명전선 각지 승리 소식≫, ≪문답란≫, ≪조국요문≫, ≪국제요문≫, ≪문예란≫ 등 고정란들을 설정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그 첫 편집자, 집필자가 되시였다.

잡지는 민족앞에 지닌 시대적과제를 가장 민감하고 정확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발행되자마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국내외의 광범한 지역들에 널리 보급되였다.

수자에 비낀 위인성지

나라의 북부국경연선에는 주체조선의 상징인 백두산이 솟아 있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조선혁명의 진로는 이 백두산에서 시작되였다.

이곳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 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고향이다.

그이께서는 주체31(1942)년 2월 16일 백두산밀영에서 탄생하시였다. 이로하여 백두산은 혁명의 성지, 위인의 성지로 널리 알려 지고 있다.

최근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에서는 백두산의 봉우리가 216개라는것을 새롭게 확증하였다. 이곳에는 장군봉(2750메터)를 주봉으로 16개의 기본 봉우리가 있고 그 주위에 200개의 봉우리가 솟아 있다. 또한 백두산밀영에 솟아 있는 정일봉(1798메터)의 상대높이가 고향집마당에서 216.42메터이며 밀영의 박우물샘이 백두산천지에 시원을 두고 있다는것이 이미 확증되였었다. 박우물 샘은 1936년 이곳 밀영 창설당시 김정숙동지께서 자리 잡고 파신것이다. 천지로부터 샘물터까지의 거리는 약 16키로메터이다.

백두산의 자연현상을 특징 짓는 이 수자들은 위인의 탄생일과 너무도 일치하다. 분명 백두산은 이곳이 위인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성지이고 **김정일**령도자는 백두산의 아들임을 말해주고 있다.

오늘 진보적인류는 **김정일**령도자를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실 21세기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

지난 2월 13일 백두산에서는 수십개 나라와 지역, 국제기구에서 온 수많은 외국의 벗들이 참가한 가운데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반외세,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아가자

로동신문 사설 주체91, 3월 1일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사에는 빛나는 장들이 기록되여 있다.1919년 3.1인민봉기도 그중의 하나이다.

3.1인민봉기는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위하여 온 겨레가 떨쳐 일어 나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전 인민적 항쟁이였다.

그것은 간악한 일제에 대한 우리 인민의 쌓이고 맺힌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였으며 조선인민은 남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도 두려워 하지 않는 자주성이 강하고 불굴의 기개를 지닌 인민이라는것을 남김없이 시위한 거족적인 애국투쟁이였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몸소 키우신 애국적청년학생들을 선두로 수많은 각계층 인민들의 참가하에 진행된 봉기는 삽시에 전국각지로 번져 져 전 민족적인 반일봉기로 확대됨으로써 간악한 일제식민지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으며 세계민족해방운동발전에 커다란 고무적영향을 주었다.

3.1인민봉기는 인민대중의 애국적열의가 높고 투쟁정신이 강하다고 해도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 옳바른 전략전술을 가지고 조직적인 투쟁을 벌리지 않는다면 실패를 면할수 없으며 침략자들과는 반드시 무장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지켜 주며 이끌어 줄 탁월한 수령의 출현을 목 마르게 기다리던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모심으로 하여 비로소 성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겨레의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시고 항일혁명전쟁을 승리적으로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조국땅우에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해 개척된 민족자주위업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해 빛나게 실현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위인적풍모와 특출한 령도실력으로 하여 오늘 우리 조국은 필승불패의 사회주의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주체의 원칙, 민족자주의 원칙을 변함없이 확고히 견지해 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찾아 주시고 일떠세워 주신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해 나갈것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고수하고 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며 민족자주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해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것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는 우리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다. 현 시대의 가장 로련한 정치원로로, 백전백승의 무적의 령장으로, 21세기의 태양으로 우리 인민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한결 같은 칭송과 흠모를 받고 계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우리 조국의 권위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는 높이 떨쳐 지고 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장군님의 로선과 구상을 철저히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혁명의 군사적보루를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야 하며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강성대국건설의 승리의 기치인 일심단결의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필생의 위업이였으며 우리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확고한 결심이다.

우리 민족은 반외세,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힘차게 투쟁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 내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함으로써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여야 한다.

강토안에 침략군을 두고서는 민족이 편안할수 없다. 이것은 3.1인민봉기자들이 항쟁의 거리에서 터친 절절한 웨침이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력사를 통해 체험한 피의 교훈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반미자주화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

강토안에 기여 든 침략군은 절대로 스스로 물러가지 않으며 또 누가 몰아 내주지도 않는다.

남조선인민들 모두가 투철한 자주의식을 가지고 반외세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설 때 미제침략자들은 배겨 내지 못할것이며 제 소굴로 쫓겨 가고야 말것이다. 최근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미국의 범죄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반대하고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이 세차게 벌어 지고 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그것은 온 겨레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외세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는것은 민족의 생사존망과 관련되여 있는 가장 중대한 과업이다.

온 겨레는 이 땅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에 추종하는 일본군국주의, 남조선호전광들의 반공화국, 반통일책동을 걸음마다 단호히 짓부셔 버려야 한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은 민족반역자들을 반대하는 투쟁과 결부되여야 한다.

자기 나라와 민족을 등지고 제국주의자들과 야합하여 민족의 리익을 해치는 반역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강토안에서 침략군을 몰아 낼수도 없고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자주적발전도 이룩해 나갈수 없다.

남조선의 ≪한나라당≫패거리들과 같은 극우익보수세력들과 호전광들은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팔아 일신의 부귀영달과 권력욕을 추구하는 극악한 민족반역자, 사대매국노무리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미전에 이런 민족반역자들에게 정치적사형을 선고한것만큼 더욱 분연히 떨쳐 일어 나 반통일사대매국노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도수를 높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민족자주정신에 배치되고 민족단합과 통일을 가로 막는 ≪주적론≫을 철회하고 ≪보안법≫과 같은 온갖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야 할것이다.

온 민족은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야 한다. 민족자주선언이고 자주통일의 기치인 북남공동선언은 오늘도 래일도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다. 북남공동선언을 고수하고 리행하는데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이룩하는 길이 있으며 민족자주통일의 운명이 달려 있다.

북남공동선언에 대한 태도는 민족자주와 외세의존, 통일과 분렬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온 민족은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옳게 구현해 나가야 하며 그것을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온갖 시도들을 단호히 배격해 나가야 한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남조선에서 누가 집권하고 어떤 ≪정권≫이 나오든 6.15북남공동선언은 변함없이 고수되고 철저히 리행되여야 한다.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민족자주의 기치,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나게 장식해야 할것이다.

오늘 제국주의호전분자들과 분렬주의세력의 무분별한 반공화국대결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정세는 극도로 긴장해 지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은 엄중한 장애에 부딪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절대로 비관을 모르며 통일에 대한 신심에 넘쳐 있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희세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어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고 우리의 미래는 락관적이며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 따라 이 땅우에 통일되고 륭성번영하는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 나가야 할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기 위한 사업을 추진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6회
학사 리종욱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2월 28일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의 연호와 태양절을 제정해 주시고 어버이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법문화한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여 이 땅의 역사가 영원히 수령님의 역사로 줄기차게 흐르도록 하셨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은 사상의 영생이고 업적의 영생이며 역사의 영생입니다. 사상이 위대하고 업적이 불멸하며 역사가 영원한 것으로 해서 우리 수령님은 영생하시는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을 위해서 주체의 연호와 태양절을 제정해주시고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헌법을 채택하도록 하신 것과 함께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추진시키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땅에 영원히 흐르는 수령님의 역사 뿐아니라 그이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더불어 길이 영생하도록 되였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기 위한 사업을 추진시키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업적은 인민을 위하여 인민과 함께 이룩하신 업적이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수령님의 업적은 인민의 마음속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세계 진보적 인류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80여 성상의 전 생애를 오직 인류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바치셨습니다. 이 장구한 여정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민족의 존엄과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의 통일과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활동을 벌리시여 20세기의 연대기 위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에는 자주와 창조로 일관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혁명정신이 맥박치고 비범성과 천재성으로 빛나는 수령님의 예지와 지략, 담력이 체현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수령님의 덕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업적에는 수령님의 위대성이 함축돼 있습니다. 바로 이것으로 해서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인민의 마음속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으로 되는 것이고, 이 업적과 더불어 수령님은 영생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은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을 변함 없이 옹호고수하고 계승해 나갈때 확고히 담보됩니다. 수령이 이룩한 혁명업적을 덜지도 더하지도 말고 천년이고 만년이고 그대로 계승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해 나가는 후계자의 충성심과 혁명적 의리의 숭고성이 있습니다.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는데서 튼튼히 의거해야 할 만년재부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 업적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장군님의 드팀없는 신조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자세로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업적을 수령님께서 생존해 계실때 보다 더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 오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번 시간들에서도 해설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가지 내용만 중점적으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선 어버이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영도하셨습니다.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뜻이였고 원대한 목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주, 자립, 자위의 강력한 사회주의국가건설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여 그것을 강성대국건설의 고귀한 유산으로 물려 주셨습니다. 혁명과 건설을 오직 어버이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의도하시는 대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충성심과 혁명적 의리에 의해서 부강조국 건설사는 강성대국 건설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 밑에 우리 인민이 건설하는 강성대국은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입니다.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이라는 것은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는 나라, 그리고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운 것 없이 잘 사는 사회주의나라를 말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 구상을 꽃피우시기 위해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험로역경을 단신으로 헤치시면서 불면불휴의 영도의 나날을 이어 오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강도에 대한 역사적인 현지지도로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어나갈 방도를 밝혀주시며 난관과 시련을 극복해 나갈 혁명정신과 혁명적 일본새에 대해서 밝혀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성진제강연합기업소에 대한 현지지도로 최후 승리를 위해 구보로 내달릴 새로운 천리마 대고조의 봉화를 지펴 주시였고 희천과 덕천, 함경남북도에 대한 현지지도로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양강도와 강원도를 현지지도 하시어 식량문제를 원만히 풀어 나갈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시였습니다. 한편,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국가과학원과 과학원 함흥부문을 비롯한 과학연구기관들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우리의 과학기술을 짧은 기간안에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향과 방도를 밝히시여 강성대국건설의 지름길을 열어주시였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진행하신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들에 대한 현지지도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는데서 혁명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견지명의 예지와 현명한 영도위에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 업적이 튼튼히 고수되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도약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군건설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영도하신데 대해서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혁명무력이 걸어온 시련에 찬 투쟁의 길에나 영광 넘친 승리의 길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군건설 업적이 빛나게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역사는 혁명군대를 먼저 창건하고 무력으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 선군혁명영도의 역사입니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중에 가장 거대한 업적은 군건설 업적입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군건설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해서 가장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우리 혁명의 연대기 위에 선군혁명영도의 새로운 장을 펼쳐 가시였습니다.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그에 의거해서 사회주의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은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을 변함 없이 옹호고수하고 계승해 나갈때 확고히 담보됩니다. 수령이 이룩한 혁명업적을 덜지도 더하지도 말고 천년이고 만년이고 그대로 계승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해 나가는 후계자의 충성심과 혁명적 의리의 숭고성이 있습니다.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는데서 튼튼히 의거해야 할 만년재부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 업적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장군님의 드팀없는 신조입니다.

위업을 수호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야 한다는 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영도의 중요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군대를 틀어지고 강력한 군력에 의거해서 주체혁명위업을 수호하고 완성시키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확고한 결심이 체현돼 있고 어버이수령님의 군건설 업적을 영원히 빛내여 나가시려는 장군님의 숭고한 충성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 부대들을 시찰하시어도 언제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군부대부터 먼저 찾으시였고 군부대들을 찾으시어서는 수령님의 현지 교시판과 현지지도 사적물들부터 돌아보시면서 모든 장병들이 훈련도 학습도 생활도 수령님께서 교시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1211고지 초도방어대, 관문점초소를 비롯한 육해공군의 수많은 부대들을 현지시찰 하시며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안변청년발전소, 월비산발전소를 비롯해서 인민군 군인들이 건설한 노동당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찾으시어 그들의 노력적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온 나라가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우도록 하시였습니다. 이처럼 군사를 국사 중에 제일 국사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독창적인 선군혁명 영도에 의해서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뚫고 우리 인민군대는 자기 영도자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닌 무적 필승의 강군으로 준비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민 군대는 주체혁명위업 수행의 핵심부대, 주력군으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으며 전군에는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이 차넘치여 무적필승의 기상이 나래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군사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영도의 고귀한 결실입니다. 선군혁명영도로 불패의 군력을 마련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업적은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역사에 찬연히 아로새겨져 주체의 건군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모든 혁명업적이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재부로, 대대손손 고수되고 있으며 어버이수령님은 이 불멸의 업적과 함께 영생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사업을 현명하게 조직영도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7회

학사 리종욱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3월 1일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신데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수령의 영생위업은 수령이 이룩한 모든 업적들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 것과 함께 수령이 생전에 하신 교시들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때 빛나게 실현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것을 다바쳐 오셨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크게 두 가지 체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며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꽃피우시기 위해서 뜨거운 정열을 바치신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백년이고 천년이고 대대손손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셔야 하며 모든 사업을 수령님식대로 해나가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생존해 계실 때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그리고 혁명과 건설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많이 주셨습니다.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사에 우리 수령님께서와 같이 자기 인민을 위해서 혁명의 창창한 미래를 위해서 그처럼 뜻이 깊고 백과전서적인 가르치심을 남긴 수령은 없습니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신 가르치심은 우리 인민들이 심장 깊이 간직하고 관철해야 할 투쟁의 지침으로, 생활의 신조로 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교시를 혁명과 건설의 영원한 대강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 나가도록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새해의 첫 사업을 금수산기념궁전에 영생의 모습으로 계신 어버이수령님을 찾아뵙고 경건히 인사를 올리며 수령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맹세를 다지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인민군 부대들과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 대한 쉼 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나날에도 항상 수령님의 교시를 녹음으로 들으시면서 그것을 관철할 방도를 구상하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교시를 철저히 관철해 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가 얼마나 투철하고 굳센가 하는 것은 수령님께서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와 제6차 대회에서 하신 보고를 전당적으로 다시 학습하도록 하시고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때에는 수령님께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 하신 역사적인 연설을 육성녹음으로 청취하도록 하신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영도사적이 깃들어 있는 인민군 부대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쉼 없이 현지지도 하시면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의 영도업적이 불패의 생활력을 발휘하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현지지도 하신 인민군 부대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찾으시여 수령님의 현지지도 노정을 밟으시는 것을 현지지도의 첫 공정으로 삼으시였습니다. 또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런 단위들을 찾으실 때마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사적을 길이 전하기 위해 세운 사적비들과 현지 교시판 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일꾼들에게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일깨워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강도를 찾으시어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오래전에 내놓으신 중소형발전소 건설방침을 철저히 관철해서 그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이끌어 주셨고 섬진제강연합기업소를 찾으시어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심혈이 깃들어 있는 주체적인 철 생산방법으로 생산을 추켜세우도록 이끄시여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봉화가 타오르게 하시였습니다. 또한, 나라가 어려운 행군을 하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전체 인민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교시 관철에로 불러일으켜 수령님께서 생전에 의도하시고 구상하시였던 안변청년발전소, 청류다리 2단계 공사와 금문2동굴, 평양향산관광도로를 비롯한 수많은 건설대상들을 완공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당과 군대, 정권도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뜻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경제와 문화건설도 수령님의 유훈대로 진행해 나가시였습니다.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이였고 웅대한 목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드시어 사회주의 강성대국의건설의 장엄한 포성을 울리시고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로 부강조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편,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일꾼들과 인민들과 하신 약속을 지켜드리시여 한없이 고결한 충성을 *** 전설도 창조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생전에 연백벌 농민들과 농사를 잘 지으면 또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켜드리시려고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을 연백벌 농민들에게 보내시여 그들을 고무해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재미교포인 손원태선생과 하신 약속을 실현해 드리려고 산천초목도 비분에 잠겼던 그 애도기간에 조국에서 그의 팔가상을 성대하게 차려주시는 대해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최덕신선생의 부인인 유모인선생과 오는 가을철에 함께 삼지연에 휴양을 가자고 하시였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가 삼지연휴양을 하도록 해주시였습니다. 이외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일꾼들, 인민들과 하신 약속을 지켜 드리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두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해서 이 땅 위에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이 관철되고 수령님의 생전의 뜻이 활짝 꽃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모든 사업을 위대한 수령님식대로 이끌어 나가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식은 우리 혁명의 만능의 보검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민에게는 수령님식보다 더 위력한 혁명방식은 없습니다. 그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식으로 혁명을 전진시키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신념이고 좌우명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정치를 펴시어도 어버이수령님처럼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펴시고 언제나 수령님식 사업방법대로 인민행 열차를 타시고 인민들 속에 들어가시어 그들을 불러일으켜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놓기 위한 기본열쇠를 위대한 수령님식 혁명방식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 데서 찾으시고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의 위력, 정치사상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서 모든 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놓기 위한 기본열쇠를 위대한 수령님식 혁명방식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 데서 찾으시고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의 위력, 정치사상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서 모든 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강도를 자력갱생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신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조성된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그 어느 지방보다도 조건이 불리한 자강도를 추겨 세우고 그를 본보기로 내세워 온 나라를 위대한 변혁에로 이끌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자강도를 추켜 세우는데서 중심고리를 전력문제를 푸는 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강도의 전력문제를 풀자면 도의 특성에 맞게 중소형발전소들은 많이 건설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강도 인민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서 자체의 힘으로 중소형 발전소들을 건설하도록 힘과 용기를 안겨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자강도 인민들이 중소형 발전소건설에 달라 붙었을때 애로와 난관은 한두 가지가 아니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걸리는 것이 발전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다른 것들은 도 자체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지만 발전기만은 전문 공장의 신세를 져야 한다고 생각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자강도의 중소형발전소건설 정형을 요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력갱생을 할 바에는 철저한 자력갱생, 백프로 자력갱생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발전기도 신기한 것이 없으니 도안의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자체로 만들라고 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셨습니다. 철저한 자력갱생, 백프로 자력갱생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은 자강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니고 있는 무궁무진한 창조적 힘을 자각하게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동기 전동기를 개조해서 발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주체87(1998)년 1월, 자강도에 대한 현지지도 과정에 어느 한 단위에서 건설한 토목식 원재 발전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비동기 전동기를 개조해서 만든 발전기를 봐주시고 아주 좋은 일이라고 이것은 굉장한 내부의 탐구로 된다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자강도에 마련된 자력갱생의 본보기를 통해서도 우리 인민들은 모든 것을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식대로 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영도풍모를 뜨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6번에 걸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데 대해서 강의해드렸습니다.

먼저 진행한 강의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은 참으로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 기간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해서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위업이 빛나게 실현된 성스러운 기간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해서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였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독창적인 선군정치 방식을 확립하신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방북불허 ≪엿장수 맘대로≫

통일연대, 방북불허 규탄및 6.15실현 결의대회 열어

2일 오후 2시 50분,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이하 통일연대)가 주최한 ≪민간통일운동 선별 탄압 규탄 및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가 소속단체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묘에서 열렸다.

강형구 통일연대 조직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종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과연 6.15 공동선언을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실현할 것인지 김대중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뗀 뒤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자면 통일부, 국정원, 검찰, 국방부가 6.15 정신에 맞춰야 하는데, 국방부는 이북을 주적으로 삼고 통일부는 선별 잣대로 민간교류 행사를 가로막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종린 의장은 ≪이 정부는 자기 상전인 미국의 뜻에 발맞춰 불허조치를 내렸다≫고 비판하고 ≪김 대통령이 자주권을 가지고 6.15 공동선언 실천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결의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김승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정치연설을 통해 ≪정부가 평화통일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이며, 따라서 민간교류는 최대한 보장하고 최소한 규제하는 원칙을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규제하고 최소한 보장하는 정부의 정책은 헌법의 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북 불허는 정부의 재량사항이지만 승인과 불허에 대한 최소한의 적합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제시한 ≪국가보안법 위반자≫라는 기준은 대통령부터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만난 국보법 위반자며, 국보법은 UN인권이사회에서도 4번이나 폐지를 권고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법≫이라고 반박하고 ≪정부가 두 번째 기준으로 제시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자≫라는 기준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엿장수 맘대로≫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이번에 간 사람들과의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 등 균등.형평성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는 대규모 방북불허 소식을 듣고 밤잠 못 자고 괴로움에 꼬박 밤을 새웠다면서 ≪정말 분통이 터진다≫며 분노를 표시하고 ≪일부러 작년 8.15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가지 않기로 했고, 범민련의 경우 배당받은 1명마저 사양하는 등 조심했다≫며 행사 성사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 한상렬 상임대표는 ≪충격 속에서 마땅히 안가야 한다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으나 고육책으로 공동준비위원장이시자 공동단장이신 신창균 선생님을 상징적으로라도 모시고 갈 수 있다면 참여하려고 했으나 이것마저 안됐다≫며 ≪6.15를 파탄내려는 공안세력과 미국의 CIA(중앙정보국)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깊숙하게 공작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한상렬 상임대표는 ≪6.15를 살리는데

목숨을 걸어야≫ 한다며 ≪6.15를 살림이 애국이고 6.15를 죽임이 매국이다≫고 규정하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단결로써 엄혹한 역사를 뚫고 전진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신창균 범민련남측본부 명예대표는 ≪공동단장인 나도 못가게 했다≫며 ≪작년 8.15 행사는 놀러간 것이 아니라 민족대축전을 참가하러 갔는데 여기에 참가했다고 안보낸다니 말도 안된다≫고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아리랑도 가고 싶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이 미국과 반민족 수구세력을 무서워하니 가히 통탄할 일≫이라고 탄식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정부의 대규모 방북불허 조치를 규탄하고 부시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비판했으며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는데 민간통일운동이 앞장서 나가자고 결의했다.

김치관기자
통일뉴스 2002/03/02

일제침략 피해자의 강제동원 특별법 촉구대회

1일 오전 10시 대구시내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는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대구경북지부≫. ≪대구KYC≫ 회원 등 70여 명이 모였다.

이날 모인 회원들은 ≪강제동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라는 문구가 적힌 노란색 어깨 띠를 두르고 집회를 치르고 있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강제동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미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일제 침략으로 인한 대표적 희생자들인 강제종군위안부 할머니, 원폭피해자, 사할린 강제이주자 등 직접적인 피해자와 그 후손들인 시민단체 회원, 대학생들까지 다양한 세대들이 참석했다.

대회사에 나선 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부 여환권 지부장은 ≪일제 침략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일본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내온 우리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관련 단체에 따르면 일제강점하에 국외로 동원된 피해자가 약 150만 명, 국내 징용피해자는 6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제동원 특별법은 이런 피해규모에 비해 해방 이후 정부차원에서 정확한 피해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이 미비했기 때문에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의 진상규명 △피해자의 인권회복 △역사의 진실 규명 등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은 후 집회 참석자들은 대구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 11명에게 강제동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집회는 끝을 맺었다.

이날 촉구대회에는 강제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이 아스팔트 도로위에 앉아 피켓을 들고 집회장소를 끝까지 지켜내 눈길을 끌었다.

이승욱기자
오마이뉴스 2002/03/01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

한미 양국은 내달부터 지상군 부대의 야외기동훈련과 상륙훈련 등을 포함한 대규모 연합연습을 실시한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오는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연합전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연습(Foal Eagle)을 통합시켜 훈련을 실시키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한미연합사는 이같은 내용의 군사훈련계획을 이날 오전 8시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에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지난 94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RSOI는 한미 양국군 지휘관들에게 유사시 해외에서 증원되는 미군들을 수용하는 지휘능력을 훈련시키고 평가하기 위한 연습이며, 대침투 연습인 독수리 연습은 양국군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야외기동훈련이다.

한미연합사의 한 관계자는 ≪이 두 연습의 통합실시는 양국군 지휘관들에게 더욱 실전적인 훈련기회를 제공해준다≫며 ≪이번 연습은 지휘부의 의사결정 능력을 훈련하고 예하 장병들에 대한 교육 및 지도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기자
연합뉴스 2002/02/28

≪태극기≫매달고 ≪애국가≫ 부르며 거리시위

네티즌들, ≪미국반대로 제2의 독립군 되겠다≫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축≫ 발언과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편파판정으로 폭발한 네티즌들의 ≪반미감정≫이 ≪행동전≫으로 고조되고 있다. 네티즌들의 ≪반미행동전≫은 미국제품 불매운동.

한국네티즌협회(http://www.18usa.ce.ro)소속 회원들은 83돌 3.1절을 맞아 서울, 부산, 대구, 마산 등 전국 대도시에서 거리홍보와 서명운동 등을 벌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맥도널드 가게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며 직접적인 불매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서울] 2백여명 불매제품 목록 홍보

서울에서는 2백여명의 네티즌들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 불매 운동 품명을 조목조목 적은 유인물을 나눠 주며 ≪불매 운동≫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모인 네티즌들은 태극기를 몸에 매달고 참가해 지나가는 시민들의 시선을 끌기도 했다.

이번 행사 책임을 맡은 최승호씨(33)는 ≪≪악의축≫ 발언이나 이번 올림픽 때의 판정, 그리고 이를 보도하는 미국 언론 등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불매 운동을 하기로 했다. 또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식도 바꿀 수 있길 바란다≫라는 행사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이제 네티즌들도 온라인에서뿐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에서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활동 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부산] 미국반대운동으로 제2의 독립군 되겠다

3.1절 오전 10시, 아직 시내 거리는 인기척이 뜸하지만 부산 태화백화점 옆 맥도날드 앞에는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20여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있다.

50여명에 네티즌들이 모여들었을때, 이들은 첫만남의 어색함도 뒤로한채 어느새 삼삼오오 짝을 지어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고 미국제품 불매를 권하는 거리홍보를 시작했다. 등에 태극기를 매단 네티즌들은 지나는 시민들의 시선을 끌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맥도널드 가게 앞에서 안에서 햄버거를 먹고있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지하철을 타고 시내 중심가인 남포동으로 이동,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었다. ≪김동성에게 금메달을 돌려줘야 해요≫, ≪우리나라를 무시하지 않도록 이런 운동을 계속해야 해요≫ 등 시민들의 반응도 뜨겁다. 흩어져 선전전을 진행하다 다시 모인 참가자들은 거리행진을 진행,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를 부르고 ≪미국제품 사지말자≫라며 구호를 외쳤다.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에 고무된 네티즌들은 남포동 시내 한 복판에서의 ≪대한독립 만세!≫삼창을 부르고 쓰레기 줍기를 마지막으로 오전10시에 시작된 ≪미국제품 불매 거리홍보전≫은 오후 5시에 끝났다.

[대구] 맥도널드서 ≪자리채우기≫, ≪시간때우기≫ 시위

대구시 중동 대백프라자 앞 모여든 40여명의 네티즌들도 시민들을 상대로 ≪미국제품 불매운동≫을 위한 거리 홍보전을 진행했다.

지나는 시민들을 향해 소리높여 외치고 있던 한 네티즌은 ≪TV를 통해 김동성선수가 금메달을 박탈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 분노가 치밀었다≫며 ≪미국의 오만함에 대한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한국네티즌협회를 발견해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시간 정도 시민들을 만나 선전을 진행한 이들은 식사를 한 후 시내 맥도날드로 향했다. 맥도날드 앞에 도착한 약 40명 가량의 네티즌들은 맥도날드에 대한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매장안에서 단 7잔만의 음료를 시킨 채 ≪자리차지 하기, 시간 때우기 작전≫을 2시간 가량 펼친 후 해산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했던 이성만씨는 ≪이후 3, 4월 계속 미국제품 불매운동을 펼칠 생각입니다. 그때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서 대중적으로 알려나갈 것입니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동성 금메달 박탈 사건에서 촉발된 미국제품 불매운동의 불씨는 이후에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뉴스 2002/03/02

MBC≪미디어비평≫ 김동성파문 ≪왜곡보도≫ 정면비판

MBC ≪미디어비평≫이 지난 25일 막을 내린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서 미국 언론이 보여준 자국이기주의 보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3월 1일 밤 11시5분에 방영된 ≪미디어비평≫(기획 최용익, 진행 성경환)은 뉴스초점 ≪뒤틀린 ≪애국주의≫ 보도≫에서 쇼트트랙 김동성 선수 실격 파문에 대한 미국 언론의 ≪자국이기주의≫와 ≪조선일보≫의 ≪이상한 애국주의≫를 다뤘다.

미 언론의 본질은 ≪자국 이기주의≫

≪미디어비평≫은 일본 ≪아사히신문≫, 프랑스 ≪르몽드≫, 영국 ≪로이터통신≫ 등 외국 언론이 쇼트트랙 1500미터 결승 오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반면 이번 올림픽 주간 방송사였던 NBC 방송을 비롯, ≪워싱턴포스트≫, ≪타임≫ 등 미국 현지 언론은 ≪오노 영웅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NBC ≪투나잇쇼≫ 진행자 제이 레노의 김동성 비하 발언과 관련, 성경환 아나운서는 ≪어느 나라 언론이든 자기나라 편을 든다고 하지만 실상까지 왜곡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를 깔보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과연 미국언론의 본질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미디어비평≫은 지난주(2월 22일 방송) 방영된 뉴스초점 ≪누가 악의 축인가≫에서도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을 대변하는듯한 보도태도를 보여준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들의 보도태도를 다룬 바 있다. 하지만 42회째를 맞은 ≪미디어비평≫이 미국 언론의 보도태도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일보의 ≪이상한 애국주의≫

또한 지난 2월22일 가판 만평과 사설에서 태극기를 던진(?) 김동성 선수의 행동을 문제삼은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도 함께 거론됐다.

≪조선일보≫는 2월22일자 가판 ≪조선만평≫에서 ≪지고도 이겼다고 떼쓰는 X이나/ 이기고도 졌다고 국기 팽개치는 X이나≫라는 내용의 만평을 내보냈다 네티즌의 항의가 빗발치자 배달판에서 이를 교체했다.

또한 사설 ≪뒤틀린 애국 오심≫에서는 ≪금메달을 눈앞에서 놓친 김동성 선수가 태극기를 내던진 것은 흥분상태라 해도 신중치 못한 행동이었다≫며 ≪단장이나 코치는 선수들의 기량 못지 않게 반듯한 매너를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훈수했다.

이에 시사평론가 유시민 씨는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한 여자가 사람 많은데서 욕을 하고 대들었다면 성추행한 사람이나 교양없이 욕한 사람이나 똑같다는 논법≫이라며 조선일보의 논조를 꼬집고 ≪젊은 선수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스케이트날에 감겨 잠깐 그런 것인데 그렇게 옹졸하게 적발해서 응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최용익 부장은 ≪마침 부시 방한기간 동안 동계 올림픽 편파 판정 사건 일어나면서 유사 이래 가장 반미감정 고조돼 있다≫면서 ≪조선일보 같은 친미 신문마저 네티즌의 거센 항의 때문에 만평을 바꿨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에서의 미국에 대한 시각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시연 기자
오마이뉴스 2002/03/02

선거보도 감시연대 발족

언론개혁시민연대(성유보 공동대표 등)는 27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1층 광고교육원 회의실에서 총회를 열고 최근 언론인권센터가 발족됨에 따라 언개련산하로 있는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와 ≪언론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를 폐지하고 신문개혁국민행동을 신문개혁위원회로 개편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총회에서는 또 오는 3월중으로 전국규모의 선거보도 감시연대회의를 언개련 발의로 구성,운영하는 한편 신문개혁위원회에 신문판매와 관련, ≪경품제공 및 강제구독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언론개혁운동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집행위원장에는 현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가 재 선출됐으며 감사에는 박문식 공인회계사와 박병완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이 선출됐다.

운영위원회 산하 정책위원회와 신문개혁위원회 방송개혁위원회 위원장 3인은 운영위원회에서 회원단체 추천을 받아 선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언론노조 기자협회 PD연합회 바른지역언론연대 등 언론현업단체, KNCC언론위원회, 여성민우회 등 시민언론운동단체, 경실련 환경련 등 시민사회운동단체 등 12개 단체를 포함 총 21개 시민사회단체가 운영위원단체로 선출됐다.

바른지역언론연대 조대기 기자

현 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 (6)

대표집필자 최성원 / 2001년 11월 6일

순 서

1. 두 개의 전선 이외에 다른 전선은 없다
2. 그렇다면 지역통일전선은 무엇인가?
3. 전략적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투쟁에서 전술적 공동전선이 가지는 의의
4. 민족민주운동의 미숙성과 그로 인한 전술적 패배
5. 전술적 실패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6. 민족해방혁명의 승리국면에 대하여
▶ 7. 민족해방혁명과 조선혁명의 전국적 관점
8. 강고한 민족민주전선을 구축하는 전략문제에 대하여
9.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중요성에 대하여

2) 민족해방혁명은 전국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우리들은 남측에서 미군을 철거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전국적 범위에서 완성하기 위한 민족해방혁명은 반국적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전국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두 개의 전선≫이라는 논문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중심내용입니다.

북측의 혁명역량이 남측을 강점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세력을 제거하는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일 반국적 관점에서 고찰하면, 북측의 혁명역량이 자기 지역혁명의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혁명을 대행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북측의 혁명역량이 민족해방혁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 북측의 혁명역량이 남측 지역혁명을 대신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철수 동지는 ≪다른 어떤 혁명역량이 한국변혁의 임무를 대신해 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북측의 혁명역량이 남측의 혁명역량을 대신하여 남측의 지역혁명을 대행하고 완수할 수 있다는 억지주장을 누가 떠든다면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두 개의 전선≫이라는 논문에서 북측의 혁명역량이 남측의 혁명역량을 대신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누가 누구를 대신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남측의 민족민주운동이 북측의 혁명역량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우리끼리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족해방혁명은 두 개의 지역에서 각각 수행되는 지역혁명과는 차원이 다른 전국적 범위의 혁명입니다. 민족해방혁명의 본질은 하나이며 그 성격, 임무, 전략, 동력도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민족해방혁명의 본질을 마치 지역혁명의 성격, 임무, 전략, 동력을 구분하듯이 두 지역으로 구분하면서 남측의 혁명역량이나 북측의 혁명역량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지역혁명으로 생각하는 것은 반국적 관점의 오류입니다.

우리들은 지역혁명의 ≪독자성≫이라는 구실을 내걸고 남측의 혁명역량과 북측의 혁명역량을 둘로 갈라놓으려는 반국적 관점을 배격합니다.

민족해방혁명을 책임진 혁명의 주체는 두 개의 지역에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체로 존재하며 혁명의 길을 함께 개척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지역에서 분리된 혁명역량이 각각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면서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가 나중에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하나로 결합되리라고 상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민족해방혁명을 책임진 혁명의 주체는 처음부터 하나의 강고한 혁명역량으로 결합되어야 민족해방혁명의 승리, 북측 지역혁명의 승리, 남측 지역혁명의 승리, 다시 말해서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와 종국적 승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북과 남)의 혁명역량은 지금 분단체제 아래서 분리되어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은 하나의 혁명역량이므로 당연히 하나의 주체로 결합하여야 진정한 의미에서 혁명의 주체로 됩니다.

남측의 혁명역량이 분단체제 때문에 북측의 혁명역량과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혁명의 주체라고 볼 수 없으며, ≪혁명적 의지를 가진 역량≫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지역혁명의 성격과 발전수준은 서로 구분되지만, 그 지역혁명을 수행하는 주체역량은 조선혁명의 전국적 범위에서 하나의 혁명역량으로 포괄됩니다. 조선혁명을 책임진 혁명의 단일한 주체가, 전국적 범위의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두 개의 지역에서 성격과 발전수준이 다른 지역혁명도 수행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지역혁명의 본질을 조선혁명의 전국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핵심내용입니다.

김철수 동지는 우리들이 주장하는 ≪두 개의 전선≫의 관점은 오히려 남이 빠진, 북 중심의 반국적 관점≫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관점이 우리 민족민주운동을 도외시하고 북측의 사회주의혁명만을 중시하는 반국적 관점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북측의 사회주의혁명만을 중시하면서, 남측의 민족민주운동이 자기 지역의 지역혁명을 도외시하고 북측의 사회주의혁명을 방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런 주장은 ≪북 중심의 반국적 관점≫이라고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남측의 지역혁명을 도외시하고 북측의 지역혁명을 방조해야 한다는 반국적 관점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은, 두 개의 지역혁명의 지위와 민족해방혁명의 지위를 조선혁명의 전국적 관점에서 정확히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남측에서 미군을 철거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전국적 범위에서 완성하기 위한 혁명을, 민족해방혁명이 아니라 남측의 지역혁명으로만 국한해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남측 지역혁명의 반국적 관점으로 됩니다.

우리들의 관점은 ≪북 중심의 반국적 관점≫이 아니라, 조선혁명의 전국적 관점입니다.

3) 두 개의 지역혁명에 대한 민족해방혁명의 지위와 역할

민족해방혁명은 남측의 지역혁명과 북측의 지역혁명의 당면임무를 규정하고 그 발전과정을 선도하는 상위의 혁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민족해방혁명과 두 개의 지역혁명은 병렬적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개의 지역혁명은 혁명의 발전수준이 서로 다르므로 고유한 성격과 임무를 지니고 있지만, 지역혁명의 당면임무는 민족해방혁명에 의하여 규정됩니다. 남측의 지역혁명이나 북측의 지역혁명은 모두 민족해방혁명의 과업을 선차적으로 수행하는 혁명입니다. 두 개의 지역혁명이 발전하는 과정도 모두 민족해방혁명에 의하여 선도됩니다.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남측의 지역혁명)은 민족해방혁명에 의하여 규정되고 선도되는 지역혁명입니다.

김철수 동지는 ≪한국변혁역량이 강화되지 않고서 전국혁명의 전진을 생각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지역혁명을 중심으로 민족해방혁명을 바라보는 반국적 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와 반대로 민족해방혁명을 중심으로 지역혁명을 바라보는 전국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민족해방혁명을 중심으로 지역혁명을 바라보는 전국적 관점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남측을 강점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세력은 남측 지역혁명의 적대세력만이 아니라 북측의 사회주의혁명과 남측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모두 봉쇄하면서 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조선민족 전체의 적대세력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민족해방혁명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북측의 지역혁명도 남측의 지역혁명도 최후 승리를 이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민족해방혁명이 승리국면으로 전진되어야 남측 지역의 혁명역량도, 북측 지역의 혁명역량도 모두 결정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계속)